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 권손두영
편집장 이성환
외대신문사 (☎직962—7128교965—7001)
외대학보 (☎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한국경제신문사 이규행

제501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8년 10월 25일 (화요일)

내년부터 전·후기 분할모집 실시

서울·용인 전과(科)50대50의 비율로 모집

본교는 89학년 신입생부터 서울·용인캠퍼스 전과에 걸쳐 50대50의 비율로 전후기 분할모집을 실시한다.

이는 기획조정처의 투차례에 걸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 지난달 중순경 분할모집에관한 학교측 입장을 교무위원회에서 최종결정, 문교부에 공식통보함에 따른것이다. 이번에 학교측이 결정한 분할모집에 관한 사항이 최종결정되기 위해서는 문교부의 공식허가절차가 남아있으나 분할모집및 그 비율결정은 각 대학의 입의에 맡긴다는 문교부측 방침이 이미 나온바있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한 학교측 결정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의 분할모집결정은 지난해 입시가 끝난후 계속적인 절찍하학을 막기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학교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분할모집을 실시한다는 원칙아래 그비율및 분할모집실시학과선정등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왔었다.

기획조정처장 안병만교수(행정학과)는 이에대해 『분할모집대상과는 전반적으로 모든 교수가 서울·용인 전과에 걸쳐 실시함을 동의했다』며 『전후기 50%의 비율로 전체교수들의 70%가 이비율을 찬성해 결정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총련」소속 5개대 복지위원장

문교부 방문 실패로 끝나

본교 용인캠퍼스 복지위원장 박수만군 (서문·포어 4)을 비롯한 한양대, 중앙대등「제2캠퍼스 총학생회연합건준위」소속 5개대학 복지위원장들이 10월13일 (목) 문교부를 방문했다.

한양대 (안산) 에서 1차로 사전모임을 갖고 제2캠퍼스에 대한 앞으로의 문교부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방문한 이들은 대학재정과장, 행정과 사무관등과 면담을 가졌으나 별 성과없이 돌아왔다.

이에대해 박수만군은 『비록 문교부장관도 만나보지 못했고 성의있는 답변도 듣지 못했지만 제2총련의 구체적사업의하나로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11월중에 실질적인 연합투쟁체인 제2총련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과대·법대·상경대 학생회장

집행유예로 모두석방

8·15남북학생회담과 관련해 구속됐던 정과대학생회장 임재혁군 (신방·4) 을 포함한 법대, 상경대 학생회장이 집행유예로 모두 석방됐다.

이중 제일 먼저 석방된 상경대학생회장 김태규군 (무역·4) 은 10월7일 (금) 북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임재혁군은 18일(화)징역10 월 집행유예 2년, 법대학생회장 박용서군 (법학·3) 은 20일(목) 징역 2년6 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모두 석방된 것이다.

판정시비로 얼룩진 외문체전

4일간 진행, 종합우승은 경영학과

지난 10월18일 (화) 부터 21일 (금) 까지 진행된 「개교34주년기념 외문체전」이 21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체전의 종합우승은 경영학과, 준우승은 무역학과가 차지했으며 입장상은 경제학과에게돌아갔다.

한편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운동종아리에서 심판을 맡지 않고 총학생회 임원과 각과회장이 심판을 볼에 따라 유난히판정시비가 많은 체전이기도 했다.

종목별로 우승한 과는 다음과 같다. ▲민주10종경기 : 경제학과▲줄다리기 : 무역학과▲씨름 : 영어과▲축구 : 경제학과▲족구 : 경영학과▲농구 : 정외과▲야구 : 중국어과▲연식야구 (여) : 일본어과▲배구(남) : 행정학과▲배구(여) : 이탈어과

직원노조 28일조합장선거

직원노동조합은 10월 28일 (금) 7시 대학원 105호실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차기 조합장및 부조합장 3인을 선출한다.

입후보자의 등록은 어제로 마감되었으며 유세기간은 26일 (수)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올해 학원민주화 약속사항중 휘경역의 외대앞 명칭추가가 지난10월 8일 (토) 마침내 실현되었다.

그러나 「외대앞」 아래에는 영문으로 「Hankuk Univ」 라고 써있어 본교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알수없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한국대학교」로 오인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를 형편이다.

본교의 영문표기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여서 이를 줄여표시하기가 어렵다면 「OE DAE」 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그 외의 적합한 표현으로 바꾸어야 옳을 것이다.

<글·사진 : 한성원기자>

용인총학 요구조항 학교측 수락

식당·교통및 복지문제와 서울부총장 임명등

▲13일 (목) 용인캠퍼스총장실에서 학생대표와 박필수 총장이 학원민주화와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고있다.

10월 14일 (금) 용인캠퍼스 석일균부총장과 정형주 총학생회장 (서문·독어 3) 이 「요구조항 최종합의서」에 합의함에 따라 용인캠퍼스 총학생회가 4차에 걸쳐 건의한 약20개항의 요구사항이 모두 타결되었다.

이번 합의는 11일 (화) 오전11시부터 부총장실에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총무부장, 복지위원장이 부총장, 관련교수및 관련부서처장과 3차례의 교섭을 통해 14일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교통문제—89년도 마장동터미널의 구의역 이전시 전용승차구·매표구 설치, 서울역노선의 재조정(총학추진) ▲식당문제—휴게실 및 식당 증설, 식당요금 10%할인 ▲복지문제—자판기 직영화 ▲매점 상품가격10%할인 ▲서울캠퍼스 부총장임명등인데 학교측과 총학생회는87년도에 약속했던 조합과 복지문제등을 재검검, 구체화시켜 공식문건화 했다.

서울, 중국어과 제2회학술심포

동양어대 중국어과 중국사회연구학회는 「중국혁명과 통일전선」이라는 제목으로 11월1일 (화) 대학원105호 에서 제2회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반식민지반봉건의 중국사회에서의 민족해방운동과 통일전선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총학,31일(월) 총궐기의날로 선포

「전·이구속…본부」결성, 집회 연일 개최예정

총학생회는 오는 10월31일 (월) 을 「광주학살 부정비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및 전두환·이순자구속을 위한 애국외대 총궐기의 날」로 선포하고 추진본부결성과 계속적인 학내집회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10월14일(금) 오후3시에는 「광주학살 부정비리책임자처벌및 10·6결사부정계승결의대회」가, 17일(월) 「구속추진본부구성 촉구대회」가 열린바있다.

한편, 31일부터 시작될 총파업을 위해 이번주부터는 과별총회와 단과대 총회를개최하며 추진본부도 결성할 예정인데 추진본부는 사무국과 선진국으로 구성되며 공개적 전투조직인 외인부대도 구성된다.

용인전화, 전자교환기로 교체

버튼식으로 바뀌어 24시간통화가능

용인캠퍼스 구내전화가 종전의 교환한중계에서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돼 22일 (금) 오후 3시경부터 점령 개통되었다.

이에따라 구내 모든 전화기가 버튼식으로 바뀌었으며 구내통화는 물론 서울캠퍼스 (8번+구내전화) 와 용인지역(9번+국번) 이 교환없이 24시간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등 기타지역은 시외전화 사용허가권을 관리과에 제출한 후 0번을 누르고 교환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마련 노태우 현정권 담당자는 해외동포의 북허 한방문을 허용하고 남북간의 교역을 민족내부의 교역으로 간주한다는 골의 내용이 담긴 7·7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소련 중공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진영과의 북방외교를 추진함과 동시에 김일성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석을만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18일 유엔총회에서는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길」이란 제목하에 유화히(?)연설을 하기도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해외동포의 북한왕래는 동법6조 잠입·탈출조항 위반이고, 남북간의 교역과 북방외교는 동법5조 자금지원·금품수수조항 위반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주석과의 만남제의는 동법8조 회합·통신조항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같이 그들이 만들어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수밖에 없는 노태우정권의 7·7선언을 비롯한 일련의 대북제안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기만적 제스츄어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총칼로 민주를 억압하고 민중재산을 강탈함은물론 학살의 만행을 자행했던 주역에 대한 구속, 처벌은안된다고 강변하면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애국지사들의 정치권대정 부정비리중 국민의 가장 소중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저질러진 정치공작과 민간인사찰을 위한 전화도청, 우편검열등 권력의 횡포는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제 자유와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우리는 진정한 통일과 민주를 위한 부정의 일차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때이다.

<오상윤>

국가보안법 8년

▲작금의 국정감사를 통해 봇물터진듯 쏟아지는 5공화국시절의 정치권력형 부정비리중 국민의 가장 소중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저질러진 정치공작과 민간인사찰을 위한 전화도청, 우편검열등 권력의 횡포는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제 자유와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우리는 진정한 통일과 민주를 위한 부정의 일차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때이다.

<오상윤>

정보과학과 연합 체육대회가져

「제3회 정보과학 학생연합체육대회」가 10월7일 (금) 12시 본교 경영정보학과 주최로 용인캠퍼스 대운동장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본교를 포함 중앙대, 국민대, 동국대, 세종대등 5개대 정보학과 학생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줄다리기등의 경기를 벌여 우승은 국민대, 준우승은 본교 경영정보학과가 각각 차지하였다.

인문대 「자주강좌」개최

인문대 학술부 주최 「제1회 자주강좌」가 북한바로보기를 주제로 10월4일 (화) 오후5시30분 교양학관 301호에서 열렸다.

외국인 북한의 현실을 학생들의 자주의식으로 바로잡자는 취지로 열린 이날 강좌에서 김동욱양 (철학2) 은 북한의 정치, 경제, 교육, 의료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후 약1시간 30분동안 토론이 진행되었다.

사 령

임

수습기자

김민수 (동양·아랍어1)
김종운 (서문·이태리어1)
노희원 (동양·베트남어1)
서화교 (서문·이태리어1)
이명례 (아간·불어1)
이영훈 (서양·노어1)
이영희 (동양·인도어1)
정현덕 (점과·정외1)
차애리 (동문·태국어1)
최경옥 (동문·스와힐리어1)
추인수 (서문·독어1)
허형진 (사법·한교1)

이상 12명<10월25일자>

▲16년만의 「국정감사」 20일만에 끝나
—16년동안 해도 모자를판인데…
▲내년부터 분할모집 실시
—엣 명성을 되찾을러나
▲「외문체전」 폐막돼.
—체력은 R (?) 력

제26회「외대문학상」마감 박두!

마감 : 10월31일(월)

1989학년도 전기

각대학원 학생모집

대학원

1. 모집과정및 학과

가. 석사학위과정 : 영어과, 불어과, 독어과, 러시아어과, 일본어과, 스페인어과, 이태리어과, 아랍어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태국어과, 스와힐리어과, 한국어과, 정외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정보과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정외과

나. 박사학위과정 : 영어학, 불어학, 독어학, 러시아어학, 일본어학, 스페인어학, 이태리어학, 아랍어학, 베트남어학, 인도어학, 태국어학, 스와힐리어학, 한국어학, 정외학, 경제학, 무역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경영학, 정보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경영정보학, 정외학

1. 모집인원 : 석사학위과정 00명

2. 시험일시 : 석사학위과정 : ①전공필독 ②영어 (구, 영어권은 제2외국어) ③제2외국어 ④구술시험

3. 원서교부및접수 : 1988년 10월 20일 (목) ~ 11월 1일 (화)

4. 시험일시 : 1988년 11월 9일 (수) 오전 10시

*재학생은 석사학위 과정 과목의 조교로 채용 및 연구보조원을 지급함

무역대학원 (야간)

(직)962—7118
(교)965—7001 (구내2109)

1. 모집인원 : 석사학위과정 각학과 00명 연구과정 00명

2. 모집과목 : ①경영학석사 :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제학과, 국제재정학과, 해외경영학과, 전산개발학과, 보험경영학과 ②경제학석사 : 국제무역학과, 국제재정학과, 국제지역연구학과 (지역연구학과는 (지역연구학과 ③면접

3. 시험과목 : ①석사학위과정 : ①전공필독 ②영어 (구, 영어권은 제2외국어) ③제2외국어 ④구술시험

4. 원서교부및접수 : 1988년 10월 20일 (목) ~ 11월 1일 (화)

5. 시험일시 : 1988년 11월 9일 (수) 오전 10시

*재학생은 석사학위 과정 과목의 조교로 채용 및 연구보조원을 지급함

통역대학원 (주간)

(직)963—0558
(교)965—7001 (구내2113)

1. 모집학과및인원 : 석사학위과정 00명 (년제) : 한영과, 한불과, 한중과, 한노과, 한스과, 한아과, 한일과, 한태과, 한인과, 한이과, 한베과, 한인과, 한러과, 한독

올림픽 투쟁평가와 향후 투쟁방향

Ⅰ. 들어가는말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화합의 제전이어야할 올림픽이 에국민주세력과 일반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얼룩진채 정권측의 공작대로 성공리(?)에 끝났다. 무더기 금메달과 보도홍수 속에서 「한민족의영광」 「세계로의 도약」 등으로 올림픽을 선전했던 노정권은 국정연설과 유엔총회의 연설 등을 통해 정권안정화음모를 한층 세련된 형태로 관철시키려 하고있다.

반면에 올림픽 기간에 다소 침체되어있던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지난 10월7일 서울대에서 있었던 서총련 집회와, 같은날 전국에서 벌였던 연합집회를 계기로 전열을 새로이 가다듬었으며 이후 광주학살 5공비리주범의 구속처단을 위한 범국민 총궐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내년에 실시될 노태우 재신임 투표에 앞서 정권안정화음모를 철저히 분쇄하기위한 것으로서 다른 시기에 비해 한층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올림픽 시기에 있어서의 투쟁평가를 바탕으로, 현시기에 대한 정세평가와 아울러 이후 투쟁방향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올림픽시기 투쟁에대한 평가

9월부터 시작된 올림픽 투쟁은 공동올림픽 슬로건에 대한 운동권 내부의 이견표출과 8·15이후 지적되어왔던 반미·반독재투쟁의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공동올림픽 정취투쟁은 대중적 토대를 가지지 못했다.

올림픽투쟁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첫번째, 올림픽시기에 대한 수동적·소극적 자세를 들수 있다.

매시기에 있어서의 올바른 투쟁형태와 그에 대한 적극적 자세, 그리고 대중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그 투쟁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것이다.

두번째로는 비폭력평화투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운동세력자체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채 별다른 투쟁의 방도를 내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평화적인 투쟁을 한다는 것이 투쟁을 자제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세번째는, 소규모투쟁을 제대로 조직해내지 못했으며 그 속에서 대중 한사람 한사람과의 만남을 경시하고 투쟁으로 이끌어내는데 소홀히하는 자세를 보이는 활동가들도 많았다는 점이다. 대규모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져 투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소규모투쟁을 대중과 긴밀히 결합하여 잘 조직해 낼 때 투쟁의 근거에 기초하여 모든 투쟁을 힘있게 전개시켜나갈수 있으며 불리한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어 나갈수도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투쟁의 잘못된 모습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 투쟁에 있어서의 성과가 전혀 없는것은 결론 아니다.

첫째, 비록 처음에 슬로우 건으로 내걸었던 공동올림픽은 쟁취하지 못했으나 그것을 통해 현정권의 분단고착화와 정권안정화 음모를 미약하게나마 폭로했으며 이후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반공·반북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향후 투쟁에 있어서 경험을 얻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통일과 반통일세력에 대한 가시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조국통일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폭이 넓어졌으며 세번째는 그간의 투쟁과제에서 조통협등 반미구국통전의 맹아를 볼 수 있었으며 기층민중운동세력과의 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Ⅲ. 올림픽이후 현시기의 정세분석

노태우정권은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쇠퇴냈다고 판단하는 올림픽 바로 직후에도 삼청교육대 자료를 발표하는등 5공화국국과의 단절성을 널리 선전하는데 주력을다해왔다. 전경환을 시작으로한 5공청산작업은 노태우집권의 정통성과 이후 집권의 안정화를 꾀하기위한, 나름대로 생각해낸 공작의 하나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노정권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광주사태에대한 사실들이 조금씩 벗겨지는 상황에서 자신과 5공화국국과의 끊을수없는 끈이 드러날수밖에없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됐다. 이러한불리한 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방외교」를 내놓은 것이다.

10·4국정연설과 유엔총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표면화된 남북관계와 북방외교강화에 대한 노정권의 입장의 본질은「통일을 한층앞당겨오며 공산권과의 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자체평가와는 무관하며 이는 분단상태의 합법화, 안정화와 보다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은 먼저, 올림픽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분단고착화 정책은 북방외교를 통한 교차승인과 함께 남북간의 대결구조를 그대로 유지, 온존시키려는, 즉 북한과는 다른 또하나의 독립된 주권국임을 공인받고자하는 것과 함께 한반도 주변에 전쟁위험과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서 파악될수 있다.

두번째 의도로서, 정부측의 통일정책 발표를 통한 상반기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이것은 단순히 조국통일운동에대한 탄압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애국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으로지결될수있다.

일련의 우익테러사건과 좌우익이념논쟁등으로 포석을 깔아놓은 미국과 노태우정권은 민족민주운동세력 주요역량을 파괴하는데 중점을 둘것이며 간접단조작 음모 역시 이러한 맥락하에서 이해될 수있다.

정리하자면, 노정권의 정국구도는 5공화국과의 단절, 북방외교와 통일문제등을 이용한 정치권안정, 그리고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탄압등을 통해 현정권의 정통성을 조작하고 정권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이 현시기에 나타난 뚜렷한 의도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국민의 의식에 있어서는 전두환·이순자를 비롯한 5공비리세력에 대한 공분, 올림픽을 전후한 반미의식의 확산, 그리고 각계 민중이 가지게된 자신의 계급적 상황에 따른 정치외식의 고양등 운동세력의 침체와는 반대로 보다 발전된 정치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이전의 5공비리주범 처단투쟁을 제반 민주화투쟁에 의해 민주주의의 철저한 실현을 요구하며 나서게 된 민중들은 전투환 일가의 부정비리에 대한 공분으로 모여져 있다.이 민주화의지는 광주학살과 5공비리의 철저한 규명과 주범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며, 또한 광주학살, 5공비리주범의 철저한 규명과정에서 노정권 주역들이권고 배제될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전면적인 반독재투쟁으로 연결되어질수 있는 중요한 대중적 토대가 되었다고 할수있다.

또한, 올림픽기간에 나타났던 반미감정의 표출을 미국의 태도로부터 발생한 즉자적 감정표현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될것이다. 이는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미국의 광주학살에 대한 개입을 피상적으로 느끼고 있던 민중들은 농산물과 양담배 수입개방으로 인해 피부적으로 미국의 본질을 인식했다고 할수 있다. 또한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과 미군의 횡포및 군사기지설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반발등 이전의 분산적인 「반미감정」은 이미 「반미의식」의 단계로 발전된것이 사실이다.

이밖에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언론인 예술인등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토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민주·민권투쟁 역시 이후의 반미·반독재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위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Ⅳ. 이후 투쟁방향

현 시기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투쟁과제로 광주학살과 5공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투쟁속에서 반노전선을 형성하여 노태우정권의 안정화음모를 뚫지지·파탄시키는 것이다.

이 투쟁은 전두환 구속처벌의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되며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안정화를 지지시키는 반군정민주화투쟁으로, 그리고 노태우 정권의 합법화와 지위상승을 통해 분단고착화를 시키려는 미국과 현 정권의 독재구조를 파탄시키는 유력한 토대로서 인식해야 할것이다.

또한 반 노태우전선을 형성시켜내는데 있어서는 제반악법의 개정·폐기투쟁과 양심수 석방투쟁을 적절히 배합시켜야한다. 양심수 석방에 대한 기만적이고, 미온적인 태도가 민주화투쟁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탄쇄들을 주체로 형성하여 야당에 대한 특별법제정압력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조국통일 촉진운동에 있어서는 현재 대중의 의식화 정도를 고려할 때 이들 대규모적인 투쟁으로 추동시켜내기는 어려운 조건이며 따라서 상반기 투쟁속에서 대중에게 제기된 통일에대한 문제의식을 높여가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다. 미국과 노태우정권이 의도하는 분단의 합법화및 한반도의 영구식민지화음모를 폭로해 나가야하며 이에대한 구체적 투쟁형태는 단독올림픽과 북방외교가 거냥하는 유엔 단독가입, 남북교차승인을 반대하는 투쟁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을 없애는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선언체택투쟁을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제기로 될 수 있는 한미 행정협정 개정 요구, 핵기지철수, 미군기지 이전요구등 정치·군사적 문제와 농축산물 수입개방반대투쟁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민족의 존엄을 짓지우지하는 핵문제와 군작전권 이양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운동단체, 법조인, 종교단체등과함께 지속적인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것이다.

제반운동과 투쟁의 전반적 기운을 높여가는데 있어 생존권 투쟁역시 더욱 적극화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투쟁과 농민의 농가부채탕감투쟁을 통해 현정권의 반민중성을 타격하는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운동세력의 강력한 지원·연대가 요구된다.

Ⅴ. 맺음말을 대신하여

우리 국국운동세력들은 지난 6·10, 8·15 학생회담 추진투쟁과 올림픽시기의 투쟁에서 많은 오류와 교훈, 그리고 적지않은 성과들을 가져왔다.

통일문제의 법국민적 확산, 반미의식의 고양, 극우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대응양식등 앞으로의 자주·민주·통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실질적 경험을 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같이 정세에대한 즉자적 판단과 시기시기마다의 올바른 투쟁원칙을 수립하지 못함으로 인해 패배감의 쓴맛도 봐야했음이 사실이다.

정권측의 의도에 대한 총체적 인식부족과 대중의 의식정도를 낮게 평가함으로 인해 잘못된 정세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올림픽이후 국면을 반파쇼 민주화국면으로만 인식하는 일면적인 관점도 잘못된 경향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화해내는데 있어서 좋은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모습은 3대 투쟁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투쟁의 성과를 올바로 계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매시기 투쟁은 단절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각 투쟁의 점직발전을 이루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이다.

미국과 노태우정권이나 애국

▲지난 10월7일 서울대에서 있었던 「올림픽 투쟁결산 및 양심수 전원석방 구국청년 청년학생 연합집회」

사설

등록금 자율화 인상안에 부쳐

—객관타당한 근거하의 인상조치가 돼야

전국 4년제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 사립대학등록금 인상폭을 최저 10%에서 최고 22.4%까지로 결정, 21일(금)그 내역을 발표했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무감하게 대해왔지만 올해의 등록금인상소식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름의 폭이 큰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학등록금이 자율화되었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한국대학, 특히 사학(私學)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은 고도로 발전된 사회속에 고급인력의"양"을 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악순환을 거듭해왔고, 이에 대학등록금의 인상조치는 열악한 대학재정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21일 (금) 모일간지는 전국 4년제대학의 각 재단이 88년재단보유의 자산으로 증식한 수익금이 대부분 억대를 넘는다고 발표했다.여기에서 주목할것은 이렇듯 재단이 거둬들이는 수익금이 억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재원조달은 학생등록금이 1백%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즉, 각대학의 재단이 전혀 대학에 투자를 하지않고 있으며 학생등록금으로 재원을 완전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등록금이 매년 인상돼야함은 이해할수 없는 아이러니인 것이다.

대학이 본명 열리의 목적을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 할때,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해도 엄연히 재단의 자산으로 증식된 수익금이 있다면 이를 투자, 등록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또한 날로 올라만가고 있는 등록금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대하여야 한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총장들의 모임인 관계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혀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차피 부담을 져야하는 당사자는 대학생자녀를 둔 가정이며 그렇다고 할 때 이들의 외견이 무시된 일방적인 인상조치는 객관성을 상실한 형태로 간주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인상 내역이 발표된 후 모대학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반대 요구는 이를 잘 웅변해 주는 것으로, 협의 단계가 없는 상명하달식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 밖에 없는 마찰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 대학은 보다 정확한 근거속에서 합리적인 인상이유를 밝혀야하고 재단의 수익금의 투자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맹목적인 인상반대를 표할 뜻은 결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대학이 있는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인상조치가 아닌 쌍방의 이해속에 협해지는 최소한의 인상이 바람직할 것이다.

패데 해만

▲지배자는 항상 자신의 지위를 안정화하기위해서 피지배자의 요구를 억압해왔으며 이에 대한 피지배자의 몸부림은 반대급부적으로 거세어지고 조직화되어왔다。이러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투쟁이기에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피지배자의 노력은 이기주의의 철저한 극복이자 휴머니즘 최고의 실현형태이다。

또한, 현신적인 자기희생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미지워져 왔다。그러나 지금까지 변천해온 사회가 계급간의 갈등과 투쟁의 역사라고 할때, 그런 측면에서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해지는 부담한 억압에 자기희생을 투틀쓰고 대함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때문에 사랑은 「분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랑과 분노는 같은 뿌리의 감정인 것이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아니며 개인주의적인 자기만족에 불과한 것이다。고로 사랑은 외롭지 못한것, 옳지 못한 것에 대한 투쟁이고 분노이며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라 할수 있다。

사랑과 분노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주체이며 근본을 이루는 민중에 대한 사랑이다。더우기 민중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외세로부터의 착취가 심해질때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람의 의미는 더욱 무거워진다。

반만년의 역사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온 수많은 선조들의 모습에는 일천한 이기심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하는 비겁함이 보이지 않는다。그들에게는 민중들에 대한 사랑과, 외세와 지배자들에 대한 분노만이 있었을 뿐이다。

▲민중들의 고혈로 분단올림픽이 치뤄지고 민중에 대한 탄압은 더욱 극심해져만가는 오늘, 한반도 남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조들이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듯하다。사람은 이기심에 매장당하고 분노는 과격이란 말로 비판받는 풍조가 이기적이고 차가운 인간만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오욕과 아픔으로 점철된 반도의 역사는 불의에 분노하여 떨쳐일어설수 있는 사람을 간직한 자를 끊임없이 기다려 왔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자는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자가 아니다」라는 네크라소프의 싯귀처럼,이제 우리의 가슴속에 들려오는 민중들의 분노를 가득담고 우리의 조국앞에 사랑으로 다시 서야 한다。

<완>

정권의 5공청산작업은 집권의 정통성·안정화 위한 포석

광주학살·5공비리 진상규명,원흉처단투쟁은 미·노정권의 독재구도 파탄위한 유력한 토대

한올의 실에서 첨단 반도체까지-韓一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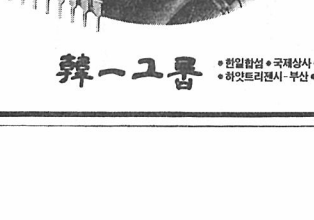
작은 뜻을 모아 큰 일을 이루는 한일그룹의 기업정신이 산업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읍니다.

섬유·화학을 통해 생활을 풍요롭게

세계 최대규모의 아크릴 생산을 자랑하는 한인합섬,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고급복지 전문메이커 경남모직등으로 세계속에 섬유한국을 심어 온 한일그룹— 이형탄면사·도전상섬유 등을 개발해 화학섬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한일그룹은 신소재섬유· 고분자제료·정밀화학분야에도 적극 참여,풍요로운 생활을 앞당기고 있읍니다.

레저·스포츠를 통해 생활을 건강하게

스포츠제품과학연구센타를 운영,품질개선·소재개발 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일그룹 — 한국의 상표 프로스펙스로 스포츠과학을 실현,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생활문화를 창조해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하얏트 리젠시 제주와 부산,풍도컨트리클럽 등의 휴양시설과 레저공간을 갖추고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연구개발(R & D)센타' 설립을 통해 21세기 기술집약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한일그룹— 가정 통신전자제품 분야에 참여하여 국산화를 제고해 기여하고 있는 한일그룹은 국제적으로도 초기기술단계에 있는 갈륨비소(GaAs)반도체 및 광통신소자 생산을 추진,고도 정보화사대를 가당한 편리한 생활을 앞당기고 있읍니다.

韓一그룹 ●한일합섬 ●국제상사 ●경남모직 ●동서석유화학 ●부국증권 ●하얏트리젠시-제주 ●하얏트리젠시-부산 ●진해화학 ●풍도컨트리 ●한효건설 ●한효개발 ●연합물산

북한-그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3>

대 담 자

김 남 식 〈북한문제연구가〉

김 창 호 〈중앙대 강사·철학〉

▲때 : 10월 18일 오후 6시

▲곳 : 연대앞 난다랑 커피숍

▲기록·정리 : 장 제 욱 기자

마르크스주의 계승과 사람중심의 철학
-주체사상의 철학원리 고찰

김창호 : 근래에 들어와서 주체사상 (이하 주사)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무성해졌읍니다。그런데 최근의 주사에 대한 논의가 지극히 비생산적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주사를 옹호하는 사람이나 주사를 비판하는 사람 모두가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종파적 감정적 논쟁에 치우쳐고 있는것 같읍니다。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이해, 주사에 대한 이해가 관련논리에 의해 주도되었고, 자료의 제한과 연구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남식 : 북한에서 주사의 등장은 실천과정에서 제기한 철학사상으로 이론적으로 규명하여야 합니다。 주사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규정하였던 여러범주, 특히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 상부구조, 계급투쟁등을 「주체의 역사단계」에서 새롭게 규명하고, 개인의 문제, 사회적 존재와 의식등에서 철학적·역사적관점을 재조명, 재정립한 것이라고 주장됩니다。 즉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로는 주체사상을 분석하는 기본적 틀과 논리는 설정하더라도 주사의 관점을 이해하기에는 1차적연구성과도 거두기 어렵고, 이해의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주사가 좀 더 일찍부터 북한연구가들에 의해 재조명되지 못하고 연구의 성과가 축적·보완되지 못했기에 주사를 쉽게 비판하려는 것은 학문적태도가 아닙니다。적어도 10년이상의 주사연구실적이 입연히국제적으로 존재하고 북한의 내적논리가 체계화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매도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급기라는 사실을 젊은 학자와 연구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창호 : 우리사회는 80년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상황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았던것 같은데, 주사가 등장하는 배경이 이와 무관하지는 않지요。 주사가 등장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①80년이후 전개되어 왔던 「사회구성체」논쟁이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것, 그래서 「사회구성체」 논쟁의 무용성과 「사회성격」 논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던것, ②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한국사회에 교조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해명되어야 한다는것, ③남한에 국한했던 관점을 남·북한을 전체적·민족적 관점에서 확대·조명해야한다는것, ④6.25이후 남한운동세력의 단절된 전통의복원, 그리고 실천적으론 ⑤대중투쟁에대한 요구등이 주사가 우리사회에 전파하게 되었던 문제의식이었고 생각됩니다。

김남식 : 그렇습니다。 주사가 관심을 끌기시작한것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구성체 논의속에서 자주적 국가수립에 대한 관심만은 아닌것같읍니다。 오히려 북한의 자주적 국가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주사로의 접근이 시작된 것이며, 갈라진 나머지 반에 대한 한문적·민족적 관심에서 또는 현대사의 복원이라는 의미에서 남북한 통시 연구의 필요성속에서 제기된 것이라 할수 있읍니다。 또한, 좌우간의 대립의 양식으로 변화되는것 같은 피할수 없는 현실속에서 남한에는 사상이 없다고 보여지는 데서 연구가 확산되는것이 아닌가하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읍니다。

김 남 식

"사람이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얼핏보면 관념적으로 생각되지만 그 논리속에서는 체계화된 유물론적 원리임을 부정할수 없읍니다"

김창호 :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언급한것과 같은 문제의식으로만 곧 주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읍니다。주사가 바르게 규명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론적·방법론적 정당화가 필요합니다。그래서 흔히 주사를 옹호하는 글에 대해서 운동론만 있지 분석적틀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조금 도식적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주사에 대한 비판의 논점을 크게 이론적, 철학적 문제와 운동론적, 정치경제적 배경의 문제로 나누어볼수 있읍니다。우선 후자의 문제부터 살펴보면 이 문제는 북한권력과 김일성, 그리고 주체사상의 해게모니형성과정의 필연성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북한에서는 주사의 기원을 1920년 항일무장투쟁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불분명 하다는 비판이 있고, 철학적 원리의 체계화에 대해서는 82년 3월 「전국사회과학 토론회」에서 김정일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로 보는것이 정설인것 같습니다。

김남식 : 외적요인은 중·소·북 삼자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라고 볼수 있읍니다。해방후 몇년간 점령군이었던 소련군을 등에업은 소련파와 한국전쟁이후 실세로 등장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연안파와의 권력투쟁등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각노선사이의 대립에서 보이는 외세와의「자주적입장」에 대한 충돌속에서 제기됨마련하는것같읍니다。경제전쟁이론에서 물질적토대 즉, 발전단계의 여건보다 중요한것은 사람의 준비정도, 사상의식의 능동성으로 발전할수있다고 주장하는것은 내적요인이라 할수 있읍것 같읍니다。

김창호 :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에서 주사가 등장하는 배경은 ①중·소분쟁에 의한 사회주의 세력과 그 헤게모니의 위기, 그리고 그것이 국내에 반영된 교조주의 사대주의의 청산의 필요성, ③6·25의 경험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처절한 인식, ③6·25에 의해 물질적 토대가 파괴된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등으로 요약됩니다。그런데 이러한 상황논리에 의해서 주사가 정당화될때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상황논리, 특수성만을 강조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사(史)적 보편성과 배치될수도 있읍니다。이와 관련해 주사에서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이것을 철학의 근본문제로 설정하고, 또 인간의 능동성, 의식성 혹은 사상의식, 그리고 정치·사상사업을 매우 강조합니다。이것이 상황논리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읍니다만 정통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적 이해에 배치된다는 비판 즉 관념론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는 문제제기입니다。

김남식 : 주사의 철학원리를 살피려면 공통성과차별성을 구별해야합니다。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사의 기본적 관점은 유물변증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졌읍니다。공히 노동 계급의 혁명적사상 (물론 이 부분도 논쟁의 촛점이 될수 있읍니다)이라는 것입니다。즉, 노동계급성은 계승성과 연관되어있고, 철학원리나 이론구조는 계승성보다는 독창성에역점을 둔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주사는 사람과 세계의 문제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판단하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사람자체는 물질가운데서 고도로 발전된 물질이지만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집단속에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관념적이지 않은 유물론적 존재로 실재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관념론과 유물론의 문제의식속에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소홀히 되어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못했고 레닌도 사람의 의식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만영이라고 하였을 뿐 의식성있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땅없는 농부가 갯벌을 보고 일구어 농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다 낚시꾼은 갯벌때문에 장화를 신고 낚시를 해야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이렇듯 사람의 인식은 자주적이고 능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주사는 얼핏보면 관념적으로 흐르지않나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 논리속에서는 체계화된 유물론적 원리라는점을 부정할수는 없읍니다。

김창호 :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실천 및 사상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능동적 의식은 일정한 물질적 조건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읍니다。 다시말해서 유물론적 관점에서 인간과 인간의 사상의식을 해명할 수 있읍니다。 인간과 사상의식을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관념론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념론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주사는 「인간과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규명되고, 세계의 객관적 운동법칙이 규정된 조건에서』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이에대해 스스로 철학적 근본문제의 「역사성」을 확립했다가 평가합니다。철학의 근본문제도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인데…

김남식 : 마르크스 이전 관념철학에서는 인간문제를 본질을 왜곡시킨채 지엽적인 문제로만 보았읍니다。 마르크스나 레닌 그 이후 모택동까지도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하지못한것이라고 할 수도 있읍니다。 주사에서 사람문제를 중시여기는 것은 개별과학 에서처럼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 설때만 세계가 올바로 파악되기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철학의 제문제가 세계와 자연일반, 사람을 해명하는 것이 근본문제로 설정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읍것 같읍니다。

김창호 : 이 철학의 근본문제는 인간론에서도 그대로 제기되는데, 주사에서는 인간의 속성을 「자주성」 「창조성」 그리고 이들의 토대로서 「의식성」을 들고 있읍니다。물론 인간은 의식적이요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라는 설명은 상식적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인간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하면서 인간에 대한 사회적 규정력을 설명하고, 이는 인간에 대한 추상적 일반적 규정보다 사회적, 계급적 규정을 중심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성에 기초해서 주사의 인간론이 계급적·물질적 조건속에서 파악하지 않는 무계급적, 추상적, 그리고 의식성을 중시하는 관점의 인간관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있는데요。

김남식 : 주사이론의 확립은 앞에서 언급했던 김정일의 논문「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핵심으로 할수 있읍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도 자주성과 창조성만을 들었읍니다。

처음으로 세가지 속성이 김정일의 논문에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노동개념속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속성을 바르게 설명하지못했다는 주장과 인간이 역사의 주체라고 밖에 밝히내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사람의 속성을 해명하는데 질적으로 논리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주사와 마르크스주의는 다릅니다。 인간그 자체는 개별적이지 않고 집단적이기에 인간관은 사회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마르크스는 사회를 인간과 사회적 부라는 요소를 보고 사회적 부속에 정신적부와, 물질적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속에서 물질적 관계와 정신적(문화적) 관계가 분공평한 것이 문제인데 계급사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사의 관점은 사회를 물질적 부로만 보는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 파악하고, 따라서 사람의 사상의식은 집단속에서 사회의식이 되며 따라서 필코 주관적이 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회적존재로만 보는 마르크스주의와 전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주사는 커다란 차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의 인간관은 필연적으로 자주성이 요구됩니다。

예를들면 자본주의가 덜 발달된 사회일지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주적으로 모순을 해결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창호 : 선생님께서 지금 「사상의식」에대해 말씀하셨는데, 우선 주사에서 사상의식에대해 「재관세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고있는 지식과 주위세계에 대한 체험에 토대하는 감정과같은 심리현상」이며 「사회·역사운동의 동력」이라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식이 인간활동의 계급적 성격과 심지어 과학적 지식까지 규제한다고 하고있읍니다。 그렇다면 이에대해 사상의식이란 자연발생적 자연발생적이거나 뜻하지 않은일로 주체가 가능하다면 물라도 인간의 속성 자체가 철저한 계급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다 주사가 나온시기가 계급적 대립이 없는 비적대적인 사회주조 속에서 나왔기에 이런 논쟁이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애매조롭 합니다。

김창호 : 그런데 사회구조를 무계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과연가능하겠읍니까。

김남식 : 저는 당파성을 띠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별과학에서는 가능할지 물라도 계급사회의 철학원리 대립구조하에서 사회구조문제는 당파성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창호 : 북한사회의특수성, 즉 물질적 토대를 갖추지못한 상태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이라는 특수성만으로는 이론의 보편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게됩니다。 소위 「주체의 시대」에 모든 식민지국가에대해 보편성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남한사회에 적용될때, 프롤레타리아라야 혜게모니와 노동계급의 지도를 인민대중으로 환원하고 계급모순을 민족모순으로 환원함으로써 전략, 전술적 오류를 범할때는 사상으로 볼 수있읍니다。

김 창 호

"사상의식은 자연발생적의식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을 부인한 주관주의가 아닌가하는 비판도 있읍니다"

북한의 주사는 자연발생의식이 아닌 사회집단을 인간이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과 연결되어 자주성실천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계급성이란 인민대중이 역사의 창조자이자 사회운동의 주체라고 말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게 말할수는 없읍니다。 계급사회에서도 피지배계급은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김창호 : 선생님께서 앞에서 「지식이 사람과 관련하여 모순을 해결할때 사상이라할 수 있다」고했읍니다。사상의식과는 구분해서 사상을 그 내포와 외연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읍니다。

김남식 : 그것은 깊이 연구해보아야할 과제입니다。 객관적 법칙자체도 지식이지 사상이 아닙니다。 그 법칙을 어떻게 무엇을 사용하는가는 저의 견해로는 계급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계급성 뿐만아니라—무계급 사회에서도 사상이 있는데 인간중심으로 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사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체철학의 대표적 특수성은 수령론이라 할 수 있읍니다。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면서 「수령의 역할이 결정적이냐」 「주사를 통한 유일체계옹호가 아니냐」 는등 북한사회를 보는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자본주의하에 많은 계급이 가능한데 부르조아 공화제가 전체국민을 대변하는정당 지도자가 나올 수있다는 허상속에서 집단주의를 이해하려고 한기 때문에 부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창호 : 최근의 북방정책이 기본적으로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기본축으로 하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복등 긍정적 결과를 낳고있는 측면도 있읍니다。그리고 전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학생들의 통일운동도 통일문제에대한 관심의 폭과 깊이를 확대했다는 전략적 측면의 성과를 가져왔읍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연구,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연구가 이전보다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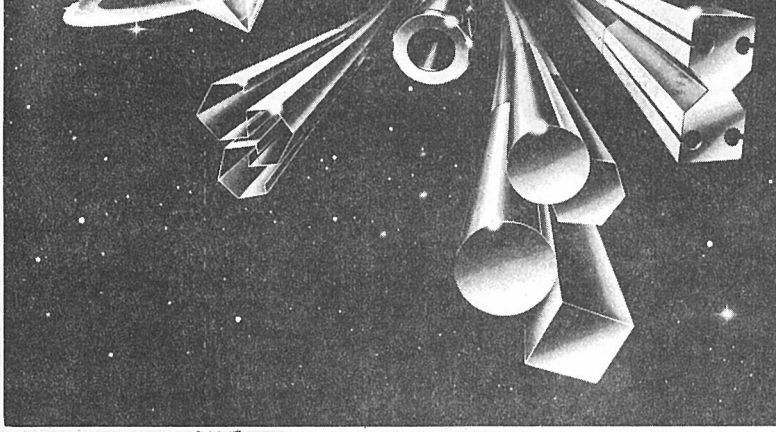
김남식 : 통일문제가전민족적과제이고, 북한학이라는 학문으로 이제는보편화되어야합니다。 그러나 관변의 학술적 성과를 국민대부분이 불신하고 있으며 외화은 많고 풀어야할 문제는 많지만 자료가 없다는데 큰문제가 있읍니다。 1차자료가 비신빙성을 가지고 지하로 유포되고있는 현실은 우선 1차적으로 학계내부에서 정비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하는 4대강국은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결코 통일을 원치는 않읍니다。 문제의 해결은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극우적 반공논리를 지양하면서 올바른 학문적접근으로 피상적연구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제 북한연구는 더 이상 지하에서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식은 주체사상이라는 내적논리를 편견없이 바라보고 적어도 과학적인 틀앞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호 : 장시간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근 주사논쟁이 종파적 주장과 감정적 비판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하겠읍니다。

글싣는 차례

1. 주체사상의 형성과 종합화과정
2. 주체사상의 철학원리 고찰
3.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고찰
4. 주체사상의 지도원칙 고찰
5. 세습체제와 지도자관
6. 과도기이론과 계속혁명론
7.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상·하>



미래를 만드는 철의보석
三美 특수강

삼미가 생산한 연간 100만톤의 특수강이 세계철강 산업의 미래를 열고 있읍니다.
철의 보석이라 불리는 특수강을 생산하는 삼미특수강이 하는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읍니다.
세계적 규모의 특수강 제조업체이면서도 일반소비재가 아닌 국가기간 및 핵심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용 기초소재, 전략산업소재 생산에만 주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원자로까지 소재 생산에 주력해온 삼미특수강은 3,000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로 합리적인 공정시설및 설비확장을 통해이제 명실공히 연간 100만톤 규모의 특수강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특수강 메이커로 성장하고 있읍니다

설비증설 및 현대화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높여 국제경쟁력에 앞장서겠읍니다.
34년의 저력으로 오로지 특수강분야에만 매진해온 삼미특수강 —
K.S., 서독TÜV, 일본JIS, 노르웨이 DnV 등의 인증을 획득 한으로써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읍니다.
이제 국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체질을 다지고 있는 삼미는 설비의 현대화 및 대형화를 꾀하고 있으며 공급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해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조에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철강한국의 미래를 개척하며 사회적 책임도 더욱 키워 나가겠읍니다.
특수강소재의 100% 국산공급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삼미특수강은 오늘도 미래의 산업사회는 이공업 첨단소재생산, 신소재 개발에 공헌이 되기위해 부단한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이룩해 나갈것이다. 사회를 위한 기업·국민을 위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는 삼미특수강 — 경쟁한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보람으로 계속 일과 성장 대해 나가겠읍니다.

■ 삼미 특수강이 쓰이는 산업분야
- 특수강봉재 : [illegible]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 [illegible]
- 무계목강관 : [illegible]
- 특수금속 및 특수합금 : [illegible]
- 개발중인 미래의 소재 : [illegible]

산업사회를 튼튼하게 가꿔가는
三美綜合特殊鋼株式會社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5-34 TEL.583-6911,584-6911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권

본래 국회는 세가지의 절대적 권능 (權能)을 부여받는다. 입법권과 예산심의권및 의결권 그리고 국정감사권이 그것이다. 국회의 이같은 3대권리는 당위적이고도 필연적인고 유권한으로서 국회의 본질적존립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 세가지 권한을 어느정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 의회주의의 성숙도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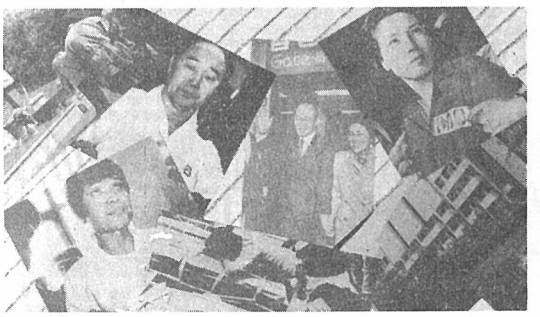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헌정 40년사상 국회가 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낸적이 한번도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전두환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행정부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전제적 복압을 휘두르는 속에 사법부와 함께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채 파행적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지난 72년 유신이후 실로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권」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안겨준다.

작년 6·10투쟁을 통해 커다란 점직 발전을 가져왔던 국민들의 민주화 외지는 제6공화국 출범후 여소야대의 정국을 낳았다. 아권의 입김이 거세여지면서 87년 10월29일 개정된 헌법 61조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올림픽 기간동안의 정치휴전이 끝난 10월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가 시작된 것이다.

총1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38개 감사반을 편성해 중앙행정기관 1백73개,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등 지방 자치단체 68개, 정부투자기관 68개등 모두 5백64개기관을 감사하며 특히 청와대, 안기부등 성역이라 일컬어지던 곳까지 감사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마치 지난 16년간의 공백을 모두채우려는 듯 자료요청만도 1차 마감일인 9월28일까지 1만2천건에 달하였고, 10월10일까지의 추가요청과 감사도중의 요청까지 합치면 모두 1만4천2백71건에 이르러 그 양의 방대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요청자료의 대부분이 80년이후 87년까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애초부터 5공비리부분에 초점이 맞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는 지난 8년간의 곪을대로 곪은 부정비리들을 끝없이 토해냈다.

5공화국 비리 폭로에 그친 국정감사
관료적, 명령적 군사정치 척결로 이어져야

비리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비민주적 잔재의 청산에 주력한다는 것이었고, 민정당에게 있어서는 최소한의 선까지 양보(?)를 하면서 5공화국과의 단절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해야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로서 현 집권층의 중심인물들이 해내는 작업에는 일단 성공을 거두었으나 「정보다 양」이었다는 인상을 준다.

폭로된 사건들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은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태도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의원들이 사전지식부족으로 사건의 핵심을 공략하지못한채 「수박 겉핥기」식의 태도를보였던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김근태씨 고문사건, 박종철군 고문 은폐조작 사건등과 관련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법원, 검찰과 밀접한 관계가있는 사건들을 심도있게 추궁하지못하고 국정감사를 마무리지어야했다. 또한 5공비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민중 생존권」문제를 소홀히 처리하고 말았다.

부실기업의 정리, 농어민 소득증대문제, 최저임금제, 농어촌의료보험제도등에 관한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들간의 폭로도가 큰 것에 관한 선호경향, 즉국민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인 5공비리를 누가 파헤치느냐에 따른 인기도를 의식하여 나온 소치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간상의 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 이것은 지난 8년동안의 문제를 단 20일안에 감사한다는 시간의 촉박성 속에서 각각의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지 못했다.

결국 무수한 문제들을 널어놓기만 한채 끝나게된 이번 국정감사활동은 각당에서 어떻게 제재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하겠다. 5공특위 활동속으로 거의 대부분 포함되리라 보여지는 이 문제들은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와 증인출석의 강력한 요구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주목해야할 것은 이번 국정감사가 앞으로의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감사기간동안 여당에서도 일정부분 5공비리 폭로작업에 동참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은 그것이 5공화국과의 단절을 통한 6공화국의 정당성정취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리라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올림픽이후 재신임이 여당으로서 넘어서야 할 최대의 과제이므로 5공화국과의 깨끗한 결별을 통해서만이 재신임에 대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으로서는 5공화국과 6공화국이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증명하는데 촛점이 모아져야 한다. 실질적인 「5공비리특별조사기간」이었던 20일동안 폭로되었던 문제의 근간에는 「군사정치」가 자리잡고 있었다.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유린속에서 관료적이고, 명령적인 군사체제를 이루며 전두환의 측근들에 의해서 자행된 온갖 부조리는 현 남한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을 더욱 심화시켜왔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그리고 공작정치를 통해 국가발전의토대들을 소수지배세력의 범위안에 집중시켜왔던 군부정치는 5공화국 출범의 주역(?)인 노태우를 위시한 정호용, 박준병 등에 의해 그대로 6공화국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들의 계속적 집권은 한반도의 모순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데 머일조할 뿐이므로 이에대한 제지는 오랜 투쟁속에서 얻어낸 국정감사권의 고유한 역할을 야당에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첫 과제이며, 앞으로 한반도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진 기자〉

전시복지행정속에 엉겨가는 장애자의 꿈

서울올림픽의 열광에 파묻혀서 세계 장애자 전체의 축제인 「서울 장애자 올림픽」이 우리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었던 사실은 오늘의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장애자들에 대한 부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장애자올림픽은 장애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자 스스로에게 의욕을 갖도록 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장애자들이 장애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장애자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각종 법령및 제도, 악습을 철폐하여 장애자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장애자 올림픽이 단순히 장애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장애자와 일반인의 공동의 생활장으로 인식하여 함께 사는 사회임을 세계만방에 알려 진정한 복지사회임을 알리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의 뜨거웠던 열기가 모두 시라져버린 잠실 주경기장에서 벌어진 장애자 올림픽의 모습은 앞서의 대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고의 시설속에서 참가선수들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해주던 때와는 달리 시작부터 선수촌에서는 식사를 하기위해 두시간씩이나 줄을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방긋방긋거리며 친절하기 짝이 없던 자원봉사자들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 썰렁함을 더해주는 듯 했다. TV방송도 가관이어서 「장애자 올림픽기간」에도 주간방송을 통해 올림픽 경기를 방영하겠다고하였으나 정작 기간동안 주간방송은 영화나 코메디, 드라마의 재방송으로 편집되어 방송되었다. 결국 돈 쐐나(?) 들여준 비한 「장애자 올림픽」은 관객없는 무대에 혼자남은 피에로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너무나 씁쓸한 행사였다.

이번 장애자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 데에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나라에서는 장애자 올림픽도 개최해야 한다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국제 척수 장애자 경기연맹」으로부터 82년, 83년, 84년에걸쳐 88장애자 올림픽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받은 객관적 상황이고, 또하나는 장애자 올림픽을 개최함으로 해서 한국의 인도주의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소련이 개최를 거부했던 장애자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 즉 북한에 대한 우월성을 과시한다는 것이다. 물론 외면적으로는 장애자들의 사기앙양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장애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통해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4백만 장애자가 있는 우리의 실정 속에서 정부는 장애자 복지정책을 전시행정으로 일관하여 제한된 일부 기관에만 지원하는 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열악할 대로 열악한 4백만 장애자들의 기본적 인권과 절박한 생존권은 무시한채 장애자 올림픽을 개최함은 극심한 인권탄압의 용광로같은 이땅의 군부독재 정권이 그들의 단압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장애자 올림픽은 현 정권의 냄새나는 전시행정 속에서도 성한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모습을 많이 목도하게 해주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반신이 전혀없는 한소년의 밝은 모습이 그러했고, 사지가 뒤틀어지면서도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뇌성마비 선수들, 팔이 없어 입으로 활시위를 당기던 미국인의 모습은 그들이 단지 신체장애를 그런식으로 극복한다는 생각을 넘어 오히려 정상인보다도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기까지의 노력을 보는 듯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겪었을 고초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유감스러운 일은 진지한 모습이 이 사회에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비인간적, 비윤리적 작태는 우리이웃들에게서 느끼는 장애자들에 대한 인식인 「무능력한 존재」「자선의 대상」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는 간혹 장애자들이 만들어놓은 공예품을 보면서 「장애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군요」하는 놀라움의 대상으로 만 여겨왔을 뿐 우리는 너무 성한 사람만의 세상으로 이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독자칼럼

정 원 영

〈서문·영어2〉

장애자들이 거리에 나서면 부조화의 대상으로 불끄러미 쳐다보며 동정의 표시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장애자를 위해 시혜하고 동정을 베푸는 식의 자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장애자들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은 전시행정에 그치는 복지시설의 확충과 화려한 구호의 제창이 아닌 장애자들에게 폭넓은 재활대책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어야 할것이다.

「장애자올림픽」이 비록 극도의 소외와 전시행정 속에서 이루어진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가 장애자들에 대한 인식을 좀더 새롭게 할수 있게 되었다면 그다지 속상한 일만은 아닐것 같다.

외대만평

₩1.403.000

임자! 저게 뭐여?

기자의 눈

고추값 근당 8백원

『우리의 음식에 고추가루 안들어가는 음식 있읍니까? 지금 우리현지 농민 고추수매가는 최저생산비 2천4백원을 훨씬 밑도는 근당 8백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읍니다. 고추팔아서 고추가루 사먹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지난 10월23일(일)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입구에서는 「고추장터」라는 이색적인 장이 열렸다.

전날 22개 민주제단체가 모여 결성한 「농산물 제값받기 농민투쟁 지원대책위원회」의 준비로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열린 이날 장은 작은 규모였지만 대학로를 오가는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월이후 경북 영양·안동등을 중심으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추값 보장」시위 및 「농산물 제값받기」운동등 구속, 연행된 농민들의 석방을 대신 팔고있는「고추장터」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미약한 정도 였지만 시민들에게 농민의 아픔을 이해할수 있게 해주었다는 면에서 성공적인 행사였다.

판매를 담당하고 있던 한 농민은 『올해들어 양담배수입을 개방하면서 정부에서 논담배를 재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고 그것 때문에 고추와 논담배를 같이 재배하던 농민들이 모두 고추재배에 몰렸읍니다.

또한 정부는 반상회를 통하여 고추생산을 권장하고 정부발행지인 농협신문 4월15일자를 통해 고추재배를 적극 권유 하기도 했읍니다. 과잉생산이 농민책임이라구요? 우리는 고추심으려서 심은죄 밖에 없읍니다.』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고추장터」의 판매량은 부진한 편이었으나 판매를 하고있는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고추값과 농산물가격을 최저생산비수준으로 전량수매 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홍보활동을 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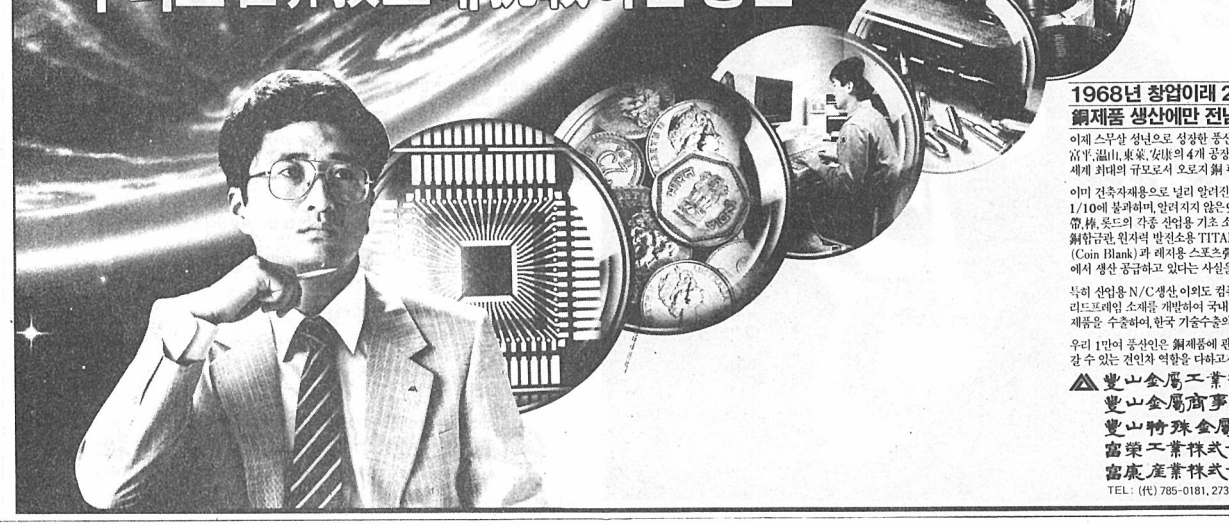
정부는 농산물 수매가 인상이 도매물가상승에 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구실로 수매가를 동결하고 있는 형편인데 가장 기본적 농산물인 쌀값이 10%인상되더라도 도매물가 상승률은 0.46%에 지나지 않는다. 또 정부는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굴복하여 방사선에 쪼이고 농약에 찌들은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속에서 우리농가의 부채는 늘어만가고 그로인해 농민들은 가슴속까지 병들어 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생산지유급률은 40%미만 입니다. 노동자, 농민, 학생, 일반시민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뭉쳐 단결할때 우리들 공통의 적을 물아낼수 있을것입니다 』라는 어느 농민의 절규가 생각난다.

<이상필 기자>

豐山

구리로 世界頂上에 挑戰하는 풍산



1968년 창업이래 20여년을
銅제품 생산에만 전념해온 풍산금속

이제 스무살 성년으로 성장한 풍산은 생산 25만톤, 매출액 5,300억으로 富平, 溫山, 東萊, 安康의 4개 공장을 가지고 명실공히 伸銅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규모로서 오로지 銅 관련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이미 건축자재용으로 널리 알려진 풍산 銅파이프는 전체 매출액의 1/10에 불과하며, 알려지지 않은 9/10의 제품으로는 銅 및 銅合金, 板, 帶, 棒, 롯드의 각종 산업용 기초 소재와 항공기용 부품소재, 담수용 銅합금관, 원자력 발전소용 TITANIUM 관, 또 精貨의 소재인 素錢(Coin Blank)과 레저용 스포츠彈은 세계 최대량과 최고 품질로 풍산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 산업용 N/C생산, 이외도 컴퓨터 산업의 꽃이라 불리우는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소재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독일에 그 제조 특허권 및 제품을 수출하여, 한국 기술수출의 장을 열게 되었읍니다.

우리 1만이 풍산인은 銅제품에 관한 한 보다 넓은 영역에서 세계 제일로 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저 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豐山金屬工業株式會社
豐山金屬商事株式會社
豐山特殊金屬工業株式會社
富榮工業株式會社
富康産業株式會社
TEL: (代) 785-0181, 273-3021

한국사회 민족모순의 구조와 그 경향성 고찰〈상〉

김 진 엽
경제학과강사·
정치경제학

Ⅰ. 머리말

구제국주의체제 아래에서 가장중요한 이론적 과제의 하나였던 식민지민족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받고 있다。 먼저 사회운동사적으로는 1920년대 이래 구식민지를 중심으로하여 전개되어 온 강인한 실천의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구태의 봉건유제에 물질적 기초를 두는 협태를 취해온 것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사회제운동의 내부에 강하게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이론사적으로는 이 문제가 주로 코민테른의 소비에트 이론가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온 것이었고, 또한 러시아혁명 이후의 상황속에서 이론논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그 실정이었기 때문에, 혁명이후의 상황에 기초하여 혁명이전의 상황을 해석하고자 하는 오류를 내포할수 밖에 없는 「전반적위기론」 전통을 형성하여 왔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이론은 일종의 (반) 세계혁명론==(반) 세계자본주의론이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현실의) 정치사적인 제약을 들 수 있겠는데 이로 말미암아 문제의 핵심이 사상되고 공식의 반복 내지는 내용없는 종래의 틀의 반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위와 같은 규정성은 종래의 이 문제에 대한 연구방법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론적 골격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종래의 산업자본주의단계에서는 노동혁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구매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과 그에 기초하는 자본축적및 이윤을 저하의 경향적법칙으로부터 공황의 가능성 도출이라는 내용이 중요한 핵심으로 간주되었음에 반하여 금융자본의 성립, 독점체제의 형성및 그지배, 원료나 노동력을 수입하고 상품및 자본수출을 할 수 있는 식민지에 대한 요구등을 매개로하는 불균등발전의 법칙의 적용으로부터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라는 새로운 단계인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종래는 강하게 부각되지 못했던 식민지민족문제가 제국주의론의 대극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슬로건도 서유럽적전통과는 상이한 수준에서 반제반봉건으로 정착되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반제반독점이라는 약간의 내용상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결정적으로 반제라는 핵심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사회제운동은 이론의 전면에 위치하지 못하였고 제과정 (특히 경제적 과정) 의 결과로서, 말하자면 하나의 부록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단순한 외산품로 치환 되었다。 최소한도로보서 나가는 사회제운동을 해석하는데에도 불충분한 부차적인 열쇠로 배달려 있는 것이 이론이었다。

그렇지만 종래의 연구방법도 일정한 이론적 발전선상에 위치하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데, 선진자본주의국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자본—노동】간의 모순→제국주의간의 모순에 기초하는 【선진성+후진성】의 복합적 모순→진영간의 모순에 기초한 저개발국내지는 제 3 세계의 모순이라는 순서로 문제인식이 넓혀지고 심화되었다는 점은 간과될 수 없다。 이가운데에서 마지막 요소는 주로 아시아에 있어서의 식민지반봉건성의 문제로 귀결되면서 전반적위기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이 글에서 문제로 삼는것은 이론사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를 종전짓는 이론의 역사과정속에서 민족·식민지문제는 과제의 해명이다。

종래의 연구에 있어서 「전반적위기」시대의 경제기구는, 선후진국간의 지배종속관계가 농업과 공업을 해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화폐의 존재, 그 발전및 자기부정의 과정에 관한 인식, 기술혁신과 공황간의 관련성에 관한 인식의 심화들의 세가지 요소에 촛점을 맞추어 분석되어 왔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은 앞으로의 이론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예컨데, 농촌사회적 유제로부터 발생하는 역사적으로 적정한 분배분에 대한 요구가 사회전반에 걸쳐서 강하게 발현되는 특수한 심격이나, 세계적 차원에서 전반위기론의 순환을 야기하는 물적순환기구의 . 분석이 【농업문제+민족문제】의 기초위에서의 계급적 적대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해명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종래의 연구방법만으로는 해명될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또한 예컨데, 사적 (대규모) 생산수단의 집중←→국가적 소유, 지배계급의 분할과 통일등의 새로운 요소가 자본제적 세계시장의 불균등발전의 법칙을 매개로하여 상이한 구체성을 가지고 발현되는 문제에관한 인식은 앞의 방식에는 전무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추상적·이론적인 문제와 역사적·구체적인 문제를 서로 준별하여 식민지민족문제는 후자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는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터인데, 종래에는 전자의 영역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나 그 연구방법을 후자의 영역속으로 도입하거나 직접 적용하려 하는 시도들이 많았던 것이다。

Ⅱ. 이론사적 몇가지 단서

본 논문은 이를 제약을 완화하면서 민족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하여 이론의 역사와 그 발전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과 정치경제학 비판에 있어서는 【모순+전체와 부분 간의 효과성】의 문제 등을 고려하는 일이 긴요하다는 종래와는 다른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그 구체적 분석의 일환으로서 민족모순의 구조와 그 구조의 조응·비조응관계로 발현되는 독자성, 그리고 그 내재적경향성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로서 하나의 지배적인 관념체계를 검토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론적 관점과 제국주의론적 관점 사이에 하나의 이론의 역사적 발전을 상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이론의 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 제국주의지배의 관철이라는 논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단계론의 인식여부를 그 내용으로 설정한다는 문제인식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는 우선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은 단계내의 소단계 혹은 독점자본주의단계 내에서의 하나의 경향성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적인 문제로 왜소화됨수 밖에 없으며, 그 한계 때문에 그속에 포함되는 내용도 제약될 수 밖에 없거나, 아니면 선험적으로 설정될수밖에 없게된다。

오히려 예컨데 내외종속성과,그 모순에 관하여, 정치적·경제적으로는 국내 매판세력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경제발전의 결과로서 새로운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는 변화가 주목될 뿐만 아니라, 군사적·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군사적 요구가 세계군사상세의 변화에 기인하는 새로운 군수물자시장의 모색으로 나타나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국주의 (내외평균) 적 성격을 갖는 국민적 지향—국독자가 한국에서 취하는 협태와 모순되는 즉, 민족주의적 요구와 국내매판세력의 요구를 동시에 견인하면서 「고도축적」을 실현하는 「계획화」 등과 같은 종래의 협태를 부정하고 새로운 협태를 모색하려는 경향—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정세는 거대한 민족적실체를 기반으로해 구 식민지이래 민족해방이 지배적과제임을 인식해야

그런데, 전자가 종속을 강화하는 요소임에반하여 후자는 지배를 강화하는 요소라는 의미에서 이들 현상은 새로운 협태로의 전환을 가져오게끔 내적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순으로 파악할 필요가있으며, 또한 이러한 새로운 전환의 구체적 협태는 무엇일까라는 문제에 대하여 해명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한다。

또한 노동과정에서도 주목할만한 하나의 변화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일단은 중소업체에서 나타난 사실이지만, 젊은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도 시다공들을 구하기 곤란하며 (고급의 일자리를 추구하고 젊은 일에는 참여하려들지 않으며, 고급의 노동조건 예컨데 양호한 (?) 식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검소한 기풍을 대신하여 사회적·퇴폐적 성향이 증대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 업체와 관련된 국내경기는 불황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 (이상은 주로 외류업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구매요구가 격감하였음에 기인함) 또한 그간의 치열한 노동자운동 때문에 임금인상의 폭이 크고 그로 인하여 이윤이 격감함에 따라 중소업체가 존립할 수 있는 공극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각민족 간의 대립이 다시 날카로와지고 있다는 현실 등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망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치환하여 두자 : 카르텔, 신디케이트 등과 같은 독점체의 생성을 당시의 새로운 현상으로 파악한 것은 변화하는 새로운 국면의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그 국면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는것은 틀림이지만, 국가기구의 개입에 의하여 그 지배가 조정되는 점은 오늘의 국면이 당시와 다른 새로운 점이다。 그런데 제국주의론에 의해 극복되었을 당시의 지배적 관념은 어떤 물질적 기구에 의하여 양극단으로 나뉘어졌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일반적인 관점과 제국주의론적인 관점 사이에는 일단 이론의 역사발전이 설정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단계론의 존재여부라는 왜소화된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앞과 같은 고대논리의 기저와 그 기저의 변경이라는 관점을 확보하는일이 긴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때에만 노동자운동의 결제주의가 그 변경의 기초이며 후자도 또한 그 자신의 물질적 기초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확인할수 있게된다。

Ⅲ. 민족모순의 구조와 그 독자성

1. 민족 모순의 구조

「세계경제적인」 커다란 변화가 소위 진영간의 대립으로 심화되면서부터 개시되었는데, 특히 구제국주의지배 아래 놓여 있던 구식민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새로운 물질적 기초를 형성하여 갔다。

첫째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국가자본주의적 경향이다。 그 경향은 제 2 차대전 종결 이후부터 개시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국에의 적용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는 1930년대부터 강화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경향이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간섭의 강화로 발현된 것이다。 물론 한국과 같은 구식민지에 있어서는 구일본제국주의의 총독부 정치권력의 물질적 기초가 일본국내의 독점체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한국에 진출한 일본자본과 총독부권력의 유착은 한국적인 제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방식을 변화시켜가면서 결제에 대한 국가외 관여를 강화시키게 되는 기구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요소가 구식민지시대 특히 1930년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통일되어온 역사과정을 인식하는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와같은 세계사적인 요소에 기초하여야만 소위 「민족경제적」인 경향을 제대로 평가 할수있기 때문이다。제 2 차대전 종결 이후 강하게 발현되었던 국가적 통제체제와 그 이후로 우후죽순격으로 싹터나오는 수많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그이후로 이러한 기초위에서 전개되는 독점체제에 의한 지배의 강화등과 같은 현상은 오늘의 현실에 대한 물질적, 역사적 기초로서 이상과같은 두가지 요소를 간과하고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상과 같은 불규칙적이며 불균등한 과정속에서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경제관계가 확립되어 나았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 사회운동의 방향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론→민족경제론→주변부자본주의론→관료독점자본주의론→신식민지독점자본주의론 등으로 이론화되면서 구체적인 역사적 과제로는 반제반봉건→반제반독점등으로 주어져 온 것이 실정이었다。 아니 그것보다도 민족해방이라는 과제가 그간의 사회운동의 방향을 특징지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구식민지체제 아래에서의 사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르기까지 민족해방이라는 과제가 지배적이라는 점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일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비대칭성은, 구식민지체제 아래에서의 민족부르조아지의 동요성이라는 특성과 그의 양극분해라는 이론적 명제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점에서는 민족모순의 구조 그 자체에 대한 해명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최근과 같은 새로운 역사과정의 전개와 새로운 국민적 지향의 형성이라는 경험적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 과제는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몇 가지 경험적 단서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분규의 증대로 인한 임금인상폭의 증대, 노동과정의 증단,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운동의 급격한 분출등으로 인한 국제적 교역관계의 불안정성 증대, 국제경제관계의 변화속에서 선진제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강화 등의 제 조건은 한국의 생산증대나 수출에 대하여 특히 독점체에 대하여 크게 불리한 조건임에 분명하다。 이와는 반대로 국제수지의 흑자와 수출량은 큰 증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괴리현상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전략의 다양화 (보호주의의 공극에 대한 침투) 나, 저개발국에 대한 자본수출및 상품수출의 모색및 종래의 사회주의국과의 교역관계확대등의 경로를 통하여 주어지는 결과로서 부분적으로는 설명될수 있으나 그 기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독점체의 전산업에 대한 지배력은 일층 강화되었다。

수십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독점체는 전체경제 속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예컨데 어떤 독점체가 1～2개월이 아닌 6개월의 휴업을 한다면 혹은 그들 경제관계의 연결 고리인 금융기구의 작동이나 생산물 유통의 수송체계의 연쇄가 단절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처럼 강력한 독점체도 국가기구의 관여에 의하여 불과 며칠 사이에 와해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정치권력의 지배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괴리현상은 국가기구의 정책적 금융지원이나 생산과정내부에서의 강제적 조정 및 복잡한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개입여지의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해명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에 문제의 본질이 해명된것은아니다。

셋째, 그런데 이들과 병행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방대한 부동자금이 형성되어 부단한 투기현상을 주기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사실이다。

통화팽창률, 물가상승, 산업의 경기변동,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대 등의 요인과 더불어 점차 법제적인체계속에 편입되면서도 사회화 내지는 국가관리의 영역 속으로 투기적 요인이 포섭되어가는 방식으로 그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종래의 계획하에 기초한 자본제적 발전과정과 맥락을 같이하는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제현상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점은 생산제력의 템포와 리듬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그에 조응하는생산제관계의 변화라는것으로 생각된다。

국가기구의 경제에 대한 관여는 바로 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권력의 지배력 강화는 단순히 경제적 기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 독자적인 자율성 혹은 독재의 강화는 전체사회의 운동이 갖는 결정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에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경험적 단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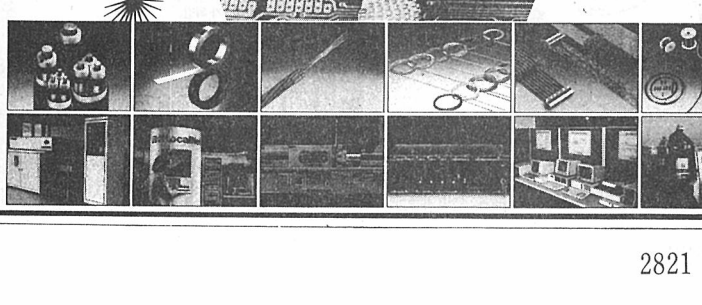
자본축적기구의 내적 제모순에도 불구하고 독점체의 고도축적으로 그 모순이 결정되는 과정속에는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어온 자본제적 불균등발전의 법칙이 관철되어 독점체에 의한 자본축적의 고도화를 귀결시키는 매개항으로서의 민족모순에 의하여 지배되는 거대한 중간기구가 작동된다。 그리고 그과정 속에서 민족모순은 자본축적기구의 내적 제모순 때문에 부단히 계급모순으로 전화되어 간다。이 가설에 대한 엄밀한 실증적 논거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지만, 다음과같은 경험적및 이론적 논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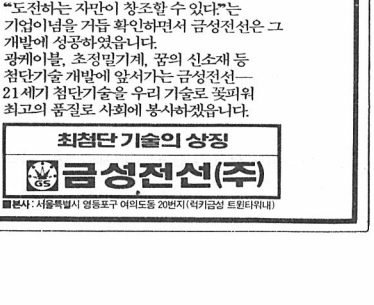
첫째,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방대한 중산층의 존재및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둘째, 중소자본가층의 감고한 존속은 이론적으로 독점체는 경쟁의 기초위에서 존립한다는 점에 의하여도 입증된다는 사실, 특히 비정상적인「부정축재」는 그들의 「강력한 발흥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고도성장」에 있어서는 그러한 지향=생산제력이 더욱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 (생산제력의 크기는 중소업체와 독점체간의 복합적 관련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다。

셋째, 최근과 같은 급격한 정치과정의 기초는 역시 그러한 민족적실체가 갖는 거대한 동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가설과 관련하여 부연하여 두고자 하는 점은 전반적위기의 경향은 진영 간의 대립이라는 세계적인 구조 속에서 국독자적인 경향성에 의하여 점차 그범위가 축소되어 왔지만, 반면에 그 자신의 고유한 물질적 토대위에서 전반적인 통일적 경향을 저해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성은 구식민지적 특성과는 준별되는 것으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경향과의 결합을 가져오는 신식민지적 특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 다음호에계속 〉

테크노피아를 향한 최첨단 기술
GoldStar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미지의 세계를 열어나가는
금성전선의 첨단기술





응용분야 무한대로 평가되는 레이저—
84년 금성전선이 공업용레이저 개발에
도전했을 때 주위에서는 무모하다고 모두들
불안하게 바라보기만 했읍니다.
그러나 8 개월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도전하는 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는
기업이념을 거듭 확인하면서 금성전선은 그
개발에 성공하였읍니다.
광케이블, 초정밀기계, 꿈의 신소재 등
첨단기술 개발에 앞서가는 금성전선—
21세기 첨단기술을 우리 기술로 꽃피워
최고의 품질로 사회에 봉사하겠읍니다.

21세기의 기술을 앞당겨 실현하는
금성전선의 각종 첨단기술 분야
●光관련 부문
광기술을 폭넓게 응용하여 광케이블과 광전변재품을 개발 공급합니다.
●신소재 부문
형상기억합금과 GaAs화합물반도체 및 초전도체등 신소재 개발에 앞서갑니다.
●초정밀기계 부문
각종 정밀기계는 물론 레이저를 이용, 초정밀기계공업에 도전합니다.
●Local Area Network 부문
LAN시스템과 관련 H/W 및 S/W 개발로 사동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합니다.

최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전선(주)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럭키금성 트윈타워내)

한반도 긴장완화의 초석 「평화협정」체결의 의의

손 근 우
〈법·법학4〉

Ⅰ. 한반도내외의 주변정세

최근들어 한반도에서는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무엇 세계대결로 인해 분단된 남북한 대립관계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분단극복선언과 통일의 현실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수용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방에 대한 진보적인 세력에 대해서 경직되고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노태우가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란 주제를 가지고 연설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대립관계의 핵심인 군사부문에 대한 언급이 빠져 노정권의 통일의지를 신뢰치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간 양대강국의 거부권 행사에 의하여 좌절되어왔던 남북한의 유엔에 진출하게 될 배경은 미·소진영의 신데탕트라는 추세로 한반도의 통일논의에까지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때문이다.

제국주의진영에서 제국주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거의 결대적인 군사적 부담을 담당해야 하는 미제국주의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부담과 해외주둔미군의 단계적 철수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로인한 일본제국주의의 군비확장이 현실화되어 남한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사회주의진영 역시 이러한 역관계에 맞물리면서 매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그것은 내부의 관료적인 변폐와 제국주의와의 군비경쟁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둔화, 특히 진보부문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에 대한 현실인식의 반영으로 새로운 평화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절리단위의 핵무기는 한체제의 무기가 아니라 인류의 멸망을 가져 오는 것이다. 따라서 미·소의 중거리핵무기 폐기제결과 전략핵무기 감축협상에서도 알수 있듯이 소련은 군비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평화를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도 아시아중거리핵무기철수와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 핵억제체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와의 적극적인 경제교류가 현실화되고 있다.

소련의 시베리아 개발계획, 중국의 4대현대화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교류는 평화를 위한 투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양대진영은 보다 적극적인 경제교류가 없이는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사정에 이르렀던 것이다. 미제국주의의 경제력 쇠퇴는 제국주의 진영내부의 역학과 견제력의 불균등으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심화시켜왔고, 사회주의진영에의 시장진출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미수출에 의존해 왔던 남한자본 역시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보호무역의 벽앞에서 현체제를 유지하려는 한 새로운 시작으로의 진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권과의 교류는 필연적 과제인 수 밖에없다.

이러한 제국주의진영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사회주의진영은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평화를 위한 투쟁의 전략적 차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비효율성 (교조주의적 인식에 따른 관료주의)에 대한 개혁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세계정세는 물밑적인 반수가 없는한 엄폐할 가는 장기적인 추세로 볼수있으며, 동북아의 주변정세는 남한의 군사대결 구조를 평화구조로 대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평화를 향한 추세에 거역하는 반동적 기운 역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의 군비축소협상에 대한 끊임없는 훼방은 미·일제국주의의 군사동맹강화및 한·미·일한등으로 심지어는 군사훈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국주의진영의 반동적 기운을 파악한때 약한 고리가 남한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통일논의와 남북한의 유엔총회 참석에 대한 전망을 살피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휴전협정에 대한 객관적 고찰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향한 추세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Ⅱ. 휴전협정 고찰의 의의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은 남북한 최대인원인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아직도 휴전상태로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환존하여 이로인한 군비경쟁은 민족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작전지휘권을 쥐한 미국은 매년 선제핵공격을 상정한 팀스프리트 훈련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러한 한·미관계의 정치·군사적 예속성은 수많은 협정, 각서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국가간의 조약은 주권국가의 동등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지만 한·미양국관계는 수미일관 불평등하게 존속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휴전체제의 유지목적과 전시협정중 주요 관간으로 하고 있다.

남한 민중이 받는 고통의 근원이 조국분단에 있음을 볼때, 조국분단의 결정적 계기가 된 휴전협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구도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이다.

Ⅲ.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

휴전협정은 전문과 제5조 부칙61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휴전협정의 내용중 그간 남북간에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2조와 4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3년4월 판문점 상병포로교환협정모습 (→UNCURK의 활동을 무언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휴전협정에 미 국무장관의 서명의 모습이 보인다.

첫째,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하기 위해 제2조13항에서는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그러나 1957년 6월21일 군사정전위원회 미군사령부가 북한및 중공측이 휴전협정의 위조항을 무시하기때문에 유엔군은 남한에 신병기를 들여오며 군사원조를 하겠다고 파기하였다.

북한과 중공이 무기를 들여 왔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것과 미소냉전체제와 발맞춰 핵무기 도입을 위한 무제한의 군비경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신무기를 도입한 조약의무 위반에 대해 휴전협정이 효력을 갖느냐의 문제는 제5조 61항 62항에 걸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본 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사령관에 관한 정치회담을 미국측에 회담의제로 제의 하였다。미국은 휴전회담은 한국에서의 군사적인 문제에만 국한시키고 일체의 정치문제를 분리시킨다는 원칙하에 정치회담에 관한 제의를 남한 지배저지를 위한 한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제외시켰다。

당시 트루만 행정부의 남한정책은 한국전쟁에서 제한전쟁을 수행해 전면전을 방지하면서 대소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에 참가 하였던 것이다。

냉전과 관련된 전면전쟁의 시작과 유럽제일주의 사고를 가진 트루만 행정부는 당시 국내외의 부정적인 시각과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과 여건이 좋지 않아 한국전쟁을 빨리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

이에 미국은 정치회담에관한 휴전조항 토의시 정치회담에 참가할 구체적인 인원·신분·정치회담의 능력·권리등과 같은 사항을 배제하고 토의할 것을 제의하여 결국 4조6항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 부터의 모든 외국군의 철수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등의 문제를 협의… 건의한다」

결국 휴전회담은 군사문제에 국한 되어야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애매하여 실제로 통일과는 거리가 먼 나열조항의 성격을 띄었다。

이규정에 의거 1954년 4월 제네바 정치회담이 쌍방 참전국 19개국이 모여 협정 2조와 4조를 파기하면서 시작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이를 더욱 확장하는 한미행정협정으로 남한은 미제국주의의 군화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군사령부가 필수 없으며 전쟁의 당사자 남한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럴때 만이 남한은 북한과 대등한 통일을 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 평화협정은 정치적 협정이므로 그 주체는 군사문제에 국한되는 휴전협정의 당사자와는 동일한것이 아니다。

즉, 전투행위의 일시정지를 정치행위의 평화조약으로 대치시키는 휴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남북한의 긴장을 해소하여 평화구조의 한 부분을 정착시키는 평화협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또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분단으로 야기 되었던 남북한의 대립 적화를 해소하여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의 하부분으로 남북한불가침선언도 하부분이 될 수있으나 정부의 남북한 불가침선언은 휴전의 상태를 유지한채 상호불가침선언을 하자는 것이다。이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제5차 실무회담에서 정부의 통일논의는 한계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남한측 박준규수석대표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이말의… 불가침에 관한… 이행을 권고하는것은…」 여기서 권고라는 것은 실질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닌 단순한 권고, 즉 실제 감제성을 띄지 못하는 것으로 불가침선언에 대한 주체적인 해결의 관점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의도가 담겨있다。회담형식에 있어 연석회의를 단순하게 변형시켜 실제논의는 몇몇의 대표자가 독점하는 통일논의를 전개할 생각이다。그동안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국내에서 고조되는 민중적인 통일논의에 허황된 분단논리를 일정정도 후퇴 시킨것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 정부는 선건설 후통일, 선평화 후통일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남북의 분단을 끊임없이 고착시키는 반민족적인 통일논의를 내세울 것이다。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분단의 벽을 허무는데 있어 주요한 문제는 분단의 원흉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그것은 북한동포가 아니라 미제라는 것이다。이러한 분단은 오늘날 미제와 소수독점을 비호하는 파쇼정권에 의해서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식민지 남한에서 전개되는 평화투쟁은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과 전민족의 생존권이 걸려있으므로 각계각층에 의한 통일전선을 위한 객관적 토대로 전개해야 할것이다。

2)평화투쟁의 방향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흔히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불가침 선언은 정치적인 한계를 가지고있으며 보다 주요한 문제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평화협정을 맺는

남한 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상호불가침 선언」제의

북한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휴전협정의 폐기」와「평화협정체결」주장

미·소 신데탕트 추세는 한반도 통일논의에 영향끼쳐
각계층의 통일전선형성을 토대로 평화협정체결해야

추세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Ⅱ. 휴전협정 고찰의 의의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은 남북한 최대인원인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아직도 휴전상태로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환존하여 이로인한 군비경쟁은 민족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특히 한국의 작전지휘권을 쥐한 미국은 매년 선제핵공격을 상정한 팀스프리트 훈련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러한 한·미관계의 정치·군사적 예속성은 수많은 협정, 각서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국가간의 조약은 주권국가의 동등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지만 한·미양국관계는 수미일관 불평등하게 존속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휴전체제의 유지목적과 전시협정중 주요 관간으로 하고 있다。

남한 민중이 받는 고통의 근원이 조국분단에 있음을 볼때, 조국분단의 결정적 계기가 된 휴전협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구도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이다。

Ⅲ.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

휴전협정은 전문과 제5조 부칙61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휴전협정의 내용중 그간 남북간에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2조와 4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하기 위해 제2조13항에서는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다。「한국 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그러나 1957년 6월21일 군사정전위원회 미군사령부가 북한및 중공측이 휴전협정의 위조항을 무시하기때문에 유엔군은 남한에 신병기를 들여오며 군사원조를 하겠다고 파기하였다。

북한과 중공이 무기를 들여 왔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것과 미소냉전체제와 발맞춰 핵무기 도입을 위한 무제한의 군비경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신무기를 도입한 조약의무 위반에 대해 휴전협정이 효력을 갖느냐의 문제는 제5조 61항 62항에 걸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본 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사령관에 관한 정치회담을 미국측에 회담의제로 제의 하였다。미국은 휴전회담은 한국에서의 군사적인 문제에만 국한시키고 일체의 정치문제를 분리시킨다는 원칙하에 정치회담에 관한 제의를 남한 지배저지를 위한 한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제외시켰다。

당시 트루만 행정부의 남한정책은 한국전쟁에서 제한전쟁을 수행해 전면전을 방지하면서 대소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에 참가 하였던 것이다。

냉전과 관련된 전면전쟁의 시작과 유럽제일주의 사고를 가진 트루만 행정부는 당시 국내외의 부정적인 시각과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과 여건이 좋지 않아 한국전쟁을 빨리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

이에 미국은 정치회담에관한 휴전조항 토의시 정치회담에 참가할 구체적인 인원·신분·정치회담의 능력·권리등과 같은 사항을 배제하고 토의할 것을 제의하여 결국 4조6항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 부터의 모든 외국군의 철수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등의 문제를 협의… 건의한다」

결국 휴전회담은 군사문제에 국한 되어야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애매하여 실제로 통일과는 거리가 먼 나열조항의 성격을 띄었다。

이규정에 의거 1954년 4월 제네바 정치회담이 쌍방 참전국 19개국이 모여 이루어졌고 양측은 통일방식과 외국군철수 문제에 관하여 상이한 견해를 내세웠다。

세째, 통일방식에 관하여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은 유엔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른남북한 동시선거를 주장했다。그러나 북한은 유엔이 전쟁당사자이므로 선거감시자격을 중립국감시하에 두어 총선거를 치루자고 제기했다。

북한은 남북대표로 구성되는 전조선위원회조직과 외국간섭배제로 자유로운 총선거분위기조성과 통일정부수립을 위한국회의원 총선거실시를 제안하고 2차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남북대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유엔측과 동일한데 선거실시직후 전 한국입법부를 서울에서 소집한다는 규정말고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 되었다。

네째 외국군철수 문제에 관하여 미국은 통일정부 수립후 유엔철수를 주장했으나 북한측 미 양국의 주한 부대를 유엔군사령관 휘하에 둔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이는 조약합의의사록을 체결하면서 같은 규정을 명시했다。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둔다」 (합의의사록 제2항)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 역시 합의의사록에 근거하여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전시협정은 국내의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연합사령부 설치법과 같은 국가간의 작전지휘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Ⅳ. 맺음말

1)평화협정체결의의의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휴전협정 2조와 4조를 파기하면서 시작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이를 더욱 확장하는 한미행정협정으로 남한은 미제국주의의 군화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군사령부가 필수 없으며 전쟁의 당사자 남한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럴때 만이 남한은 북한과 대등한 통일을 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 평화협정은 정치적 협정이므로 그 주체는 군사문제에 국한되는 휴전협정의 당사자와는 동일한것이 아니다。

즉, 전투행위의 일시정지를 정치행위의 평화조약으로 대치시키는 휴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남북한의 긴장을 해소하여 평화구조의 한 부분을 정착시키는 평화협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또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분단으로 야기 되었던 남북한의 대립 적화를 해소하여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의 하부분으로 남북한불가침선언도 하부분이 될 수있으나 정부의 남북한 불가침선언은 휴전의 상태를 유지한채 상호불가침선언을 하자는 것이다。이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제5차 실무회담에서 정부의 통일논의는 한계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남한측 박준규수석대표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이말의… 불가침에 관한… 이행을 권고하는것은…」 여기서 권고라는 것은 실질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닌 단순한 권고, 즉 실제 감제성을 띄지 못하는 것으로 불가침선언에 대한 주체적인 해결의 관점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의도가 담겨있다。회담형식에 있어 연석회의를 단순하게 변형시켜 실제논의는 몇몇의 대표자가 독점하는 통일논의를 전개할 생각이다。그동안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국내에서 고조되는 민중적인 통일논의에 허황된 분단논리를 일정정도 후퇴 시킨것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 정부는 선건설 후통일, 선평화 후통일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남북의 분단을 끊임없이 고착시키는 반민족적인 통일논의를 내세울 것이다。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분단의 벽을 허무는데 있어 주요한 문제는 분단의 원흉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평화투쟁의 내용은 부엌이며 전체투쟁의 방향속에 자리 잡아야할 위치는 어떠한지 간단히 서술해 보자。군사적 대치를 해소하는 상태에서 북한은 매우 일관되어있다。1953년 김일성주석은 평화통일 5대강령중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5가지 항목을 제안하였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사의 철수와 군비의축소, 외국으로 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이러한 제의에 대해서 남한은 힘의 우위에의한 체제대결의 관점이아니라 민족적 화합과 대단결의 원칙에입각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흔히 북한에의한 전쟁의 우려를 생각하지만 이역시 진정한 평화를 바라지 않는 섣부른 생각이라 하겠다。

최근 남한이 기존의 전반방어전략에서 공세적인 전략으로 변화하는 양상을볼때 북한은현재 무기체계의 양과질면에서 실지 공격 능력을 갖여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지적하였듯이 군사적 긴장의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의 문제는 남한의 민주화, 미군의 철수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불배 한반도의 전체차원에서 전개되는 조국통일은 남한의 민족과제와 외세를 극복하는데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주체와 영역을 달리하며 독자성을 갖는것이다。

즉 철저한 평화투쟁은 진정한 자주·민중정부를 세우기위 한깊이를 더할것이며 한반도의 통일인식과 맞물리며 통일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것이다。

두산그룹에서 즐겁게 일합니다. 4

10월7일
퇴근길 생맥주집—
격의 없는 대화 속에
마음과 마음이 열립니다.

대화가 통하는 두산그룹
하루의 보람을 함께 나누다 보면
일하는 분위기도 참 즐겁습니다.

회사 앞 생맥주 집.
여기저기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고
왁자지껄 건배를 외쳐댑니다.
퇴근길에 가끔 들르시는 사장께서도
오늘은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마음을 풀고 스스럼 없는 대화를 나누기엔
이런 자리처럼 부담없는 곳도 없습니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하루의 보람을 나누고
우리의 발전을 위해, 더 좋은 내일을 위해
함께 잔을 올리는 분위기!
그래서인지 두산은 항상 따뜻한 정이 넘칩니다.

대화가 통하고 정이 통하는 두산그룹—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일하는 분위기도 참 즐겁습니다.

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일어가는
두산그룹

●두산산업●동양맥주●동산토건●두산식품●두산기계●두산유리●두산농산●오리콤●두산유업●두산전자●두산곡산●두산제관●오비씨그램●베리나인●동아출판사●동아인쇄공업●백화양조●한국네슬레●동원건설●오비베어스●연강학술재단

내실 기하지못한 용인총학 요구사항

작년학민 약속조항 점검수준에 머물러

지역학도입·단과대분리등의 논의는 전혀 진전없이 종결

지난 14일 (금) 학교측이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교통, 식당, 캠퍼스내 조경사업등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복지시설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중복학과, 단대분리등 장기적 안목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접근조차 못하고있는 실정이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인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난 13일 (목) 11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최종 합의된 내용은 대부분이 작년 학민 민주화 약속조항을 좀더 구체화 시키고 이행시기등을 명시하는 수준에서 머물았고 대부분 복지문제만이 해결되었을 뿐이다。

이번 총학생회의 노력은 학생들에게 수업거부, 점거농성등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학교측과의 교섭을 통해 해결되어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 사업이었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문제에 있어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온 노선결행, 배차시간 불철저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과 시간표작성등을 공식화하였고, 일주일 단위로 차량의 출발·도착시간을 복지위원회에 통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89년도 학생수 증원에 따른 교통대책을 교통특별위원회(학교측)에서 을해안(88년11월) 에 수립·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승차인원이 적은 서울역노선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노선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이와함께 학교측은 89년도에 기존의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이 구의역으로 이전시 전용승차장·매표구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매년 학림민주화 최대 이슈로 등장했던 교통문제는 올해 교통특위 발족후 지입제버스가 증차되는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이번 통학에 관한 교통문제의 합의사항은 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마련되지못했지만, 지금까지 문제시되었던 노선결행·배차시간 불철저등에 대해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불편을 다소 해결해줄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물질적보상」 등의 방안은 구체적 내용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식당의 경우 「학교직영화」는 예산부족, 식자재구입의 어려움등으로 미루어졌으나 대신에 새로운 시설물, 모든 비용 (전기료 50%제외) 은 학교측이 부담하기로 합의 돼 개인업대운영방식의 폐해점이 다소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만이 많았던 식단, 위생에 대해서도 외부 영양사로 하여금 부정기검사를 실시토록 명문화하였고 식당규모도 조사후 가건물 설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식당의 열악한 환경, 즉 절대부족한 주방인원, 불결한 위생, 형편없는 음식질등에 대한 근본적인해결방안은 「직영화」 형태를 취할때야만 해결가능할 것이다。

이외에도 자판기가 89년도부터 직영화되며 매점도 10%할인되고 어문학관앞 사회과학관 「파고라」설치, 명수당주변 벤치및 식목, 문리학관, 버스승차장주변 휴식공간마련등 캠퍼스내 조경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듯 복지문제는 일정정도 합의를 보았지만,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지역학 도입, 동서양학대로의 개명, 등구어대분리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못했다。

지난10월13일(금)동·서양어문대 학생회에서는 지역학연구소 설치, 단대명칭개명, 커리큘럼 지역학도입추가등을 내용으로하는 건의서를 올린바 있다。그러나 이에대해 학교측은 단지 10월24일부터 입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 그결과 여부에따라 차후에 논의해 보기로해 실질적으로 지역학도입에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이번 합의서 내용을 총괄, 평가해보면 지난 학림민주화투쟁때 약속한 미해결조항과 현재 열악한 복지시설에 대한 재점검, 개선촉구에 그쳤으며 좀더 뚜렷하고 장기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볼수있다。이에 남은 과제는 총학생회측의 요구조항에대한 학교측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구 마련과 올해 얻은 요구조항의 장기적 안목하에서의 신중한 대책마련과 아울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방안을 강구하는 짐일 것이다。

<강병준기자>

태국어과 제2회 심포지움

서울·용인캠퍼스 태국어과 제2회 심포지움이 용인캠퍼스에서는 11월7일 (월) 오후4시 교양학관201호, 서울캠퍼스에서는 11월2일 (수) 오후5시 대학원 211호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제3세계 국제관광의현황」 이라는 주제로 한국·태국의 근대화과정과 관광정책및 매춘현황, 올바른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한 발표등이 있을 예정이다。

사학과 주최 졸업논문 발표회

「제2회 사학과 졸업논문 발표회」 가 지난 10월6일(목) 오후3시30분부터 6시까지 교양학관 301호에서 있었다。

논문발표를 통한 학생들의 학문활동 증진을 위해 한국사 및 서양사, 동양사의 3개부문으로 나뉘어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홍태군의 「임제하의 재만 (在滿) 한인의 민족교육」 등 총 5개 논문이 발표되었다。

서울, 「제1회 여학생 대동제」 무관심속에 치뤄져

◇10월19일 (수), 첫번째로 열린 서울캠퍼스의 여학생대동제 개막제 모습

서울캠퍼스「제1회 여학생대동제」가 10월19일 (수), 20일 양일에 걸쳐 여학생위원회 주최로 통일광장에서 열렸다。

19일 오후4시 통일광장에서는 얼림굿을 시작으로 개막제가 펼쳐졌으며 이어 학뤼당하는 여성을 주제로 한 노래한마당이 민족음악연구회 준비위원회 안혜경의 11인의 초청공연으로 있었다。들뢰낱인 20일 오후 7시에는 집체극 「여압발는 한국의 여성사」가 통일광장에서 공연되었다。

삼시행사로는 학생회관 앞 삼징탑부근에서 펼쳐진 서꾀전시회및 여학생 휴게실에서의 「순영이의 사랑이야기」, 「어름의 자식들」, 「여왕벌」 등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다。

한편 첫번째로 열린 이번「제1회 여학생대동제」는 많은 학생 특히 여학생들의 극히 저조한 참여속에 끝나 여학생대동제의 기획의도를 무색케 했다。

총동문 회장배 테니스대회

총동문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9월10일 (토) 김현욱총동문회장등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두개의 조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가조는 공동우승으로 신문수교수 (염어), 이영구교수 (중국어) 조와 윤종건교수 (교육학), 이영환교수(경영정보대학원) 조이며 나조에서는 이종육교수(경영학과), 정영훈교수 (교육학) 조가 우승을 차지했다。

고(故) 이재용·이시경군 추모회 건설

추모비설립 및 자료집 발간 예정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고 (故) 이재용·이시경열사 추모사업회」가 10월6일(금) 오후4시 어문학관앞 해방광장에서 발족되었다。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위한 애국학생특별위원회」와 함께 발족된 추모사업회는 87년6월항쟁기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고 (故) 이재용 (서문·영어 84학번) 이시경 (사회·경제 86학번)군의 뜻을 기리기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것이다。

추모사업회 위원장을 맡은 구본영군(서문·영어3·휴학)은 「이번 학기내 추모비 건립과 추모자료집 발행을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밝힌후 「그러나 추모비등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학생들이 열사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

동총련의장 불법연행 관련 「청년학도 규탄대회」 열려

「동부지구 총학생회연합의장 김남훈군 (한양대총학생회장·사학4) 불법연행에 대한 동부지구 청년학도 규탄대회」가 지난10월21일(금)오후3시 한양대 학생회관앞에서 열렸다。

본교를 포함한 동부지구 소속 5개대학 5백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본교 총학생회장 합철성군 (법·법학4) 은 규탄결의문을 통해「이번 동총련의장 김남훈군의 불법연행은 애국청년학도에 대한 계획적인 도전이며 전두환·이순자를 구속하기 위해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는 백만청년학도의 예봉을 꺾기위한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난하고 이후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일 것을 선언했다。

용인, 「자주·민주·통일특위」 발족

"목숨보다 귀중한 민족의 자주권 반미로 수호할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애국학생 특별위원회 (이하 자민 특위) 발족식이 지난 10월6일(목) 오후3시30분 용인캠퍼스 해방광장에서 열렸다。

2백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특별위원장을 맡은 사회대 학생회장 백인규군 (경영정보4) 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자민특위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를 이루려는 식민지 청년학도의 단결·투쟁 구심으로 자리잡을것」이라고 밝힌후 「북방외교등을 들먹이며 기만적인 통일방안들을 제시하고있는 노태우와 그배후조정자 미국에 대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집회1부에서는 올림픽을 전후해 열렸던 10여차례의 공동올림픽 쟁취 집회와 미국 올림픽 대표선수들이 저질렀던 폭력·절도사건등 미국인만행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교문밖 진입로에서 「친미로 망한나라 반미로 되살리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한편, 지난 10월20일 (목) 오후3시 해방광장에서는「미국·노태우의 분단고착화음모 저지를 위한 애국학생결의대회」가 있었다。

타임시사 연구회 「5백주차」행사 예정

서울캠퍼스 타임(Time)시사연구회는 10월31일 (월) 부터 11월5일 (토)까지 대학원 104호에서 「제5백주차 기념행사」를 갖는다。

지난 76년 창립된 타임 (Time) 시사연구회는 그동안 12여년에 걸쳐 매주 타임 (Time) 지 공개강의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 행사기간중에는 재학생, 졸업선배 강의와 교수초빙강의및 제10회 어휘력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양학부 26일 (수) 특강개최

교양학부는 10월26일 (수) 오후3시 대학원 104호에서 제2학기 교양특강을 개최한다。

연사는 강인덕박사 (극동문제연구소장) 이며 「북한의 체제개혁은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사회대 오늘 교양특강

사회과학대 제2학기 교양특강이 오늘 (25일) 오후 2시30분 교양학관 301호에서 열린다。

송광영 열사 3주기추모제 열려

「송광영열사 제3주기 추모제」가 지난10월21일(금) 12시 경원대학교 민주광장에서 2천여명의 학생, 시민이 모인가운데 거행되었다。

열사 추모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추모식중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민중해방의방안」을 제목으로 강연한 백기완씨는 「민중들의 가열찬 투쟁은 기필코 민중해방을 이룩할것」이라며 「송광영 열사의 죽음은 분명히 민중해방의 거대한 초석이 되었다」고 말했다。

추모식후 3백여명의 학생들은 경원대앞 도로 약5백미터를 점거한채 2시간30여분 동안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국정감사는 민초들이

○…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기간이 종말에 이르자, 희·비극의 장면이 속속 연출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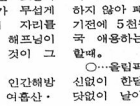
민초들의 기대속에 16년만에 다시 부활된 국정감사가 나라살림 짊어진 이모내무부장관의 위증을 비롯, 비리자들의 국정감사제도에 대항한 용감한 (?) 도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되자 민초들의 실망한 표정과 감사대상자들의 안도의 한숨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진 것이 바로 그것。

권력의 비호를 받아 법앞에서도 날고 뛰는 망동이 비리자들에게 이제는 민초들의 국정감사의력을 보여야 할때。

○…여성해방을 위해 고고의 뢰를 치며 벌쳐 일어선 몇몇 용감한 (?) 여흡산들, 펄쳐놓은 명석에 찾아드는 흡산들없어 맥빠진 모습이 역력。

이문벌에 마련된 여흡산대동단결을 위한 장 (場) 에 몇몇 흡산들만의 저조한 참여로 끝났는가 하면, 며칠전 왕산여흡건설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초청가수공연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부분의 흡산이 자리를 뜨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또 한번 재현된 것이 그 연유인바。

여성해방은 곧 인간해방임을 각인하여 여흡산·남흡산 모두가 인간해방 전선에 주체로 나서야할터。



○…올해들어 왕산골이 10월 한달을 「우체국 살리는 기간」으로 선포해 놓고 있어,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이구동성, 왕산흡산들의 우체국설립요구에 지난해 설립되었건만 근 1년이 지난 현재 흡산들의 절대적인 이용저조로 운영곤란에 봉착해 학생지도층에서 우체국을 많이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불가피하게 벌이게 된 것이라고。

들리지 않는 기계는 녹이 스는 법, 우체국 이용하지 않아 폐관되는 결과 오기전에 5천왕산흡산들 우체국 애용하는 실천을 보여야 할때。

○…율림픽의 허상속에 정신없이 한달이 지난후 느닷없이 날아든 비보가 있어 흡산들 온통 안면근육이수축된 상태라고。

사연인즉, 각 대학교 등록금책정이대학자율에 맡겨진뒤, 며칠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등록금인상율을 최저 10%에서 최고 22.4%까지 인상한다는 결정을 내린것이 그것으로 등골빠지게 일해 학비조달하고 있는 우리네 부모들 사정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통고해 버린것。

어른신네들은 대학의 자율화를 대학등록금 자율화로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언젠가는 학생없는 교실에서 강의하는 수도 있을 것임을 명심하시길。

○…「전·노일당 처단과 애국의대체력단련을 위한 한마당」 외문체전이 많은 폐단 (?) 속에 치뤄졌다는 후문。

내용인즉, 각 경기종목실관을 놓고 체육동아리인과 주최측이 사례금에 이견차를 보여 결국 주최측이 경기실관을 보았는데, 관중이 불공평했다고 폐막식단상에 뜻불을 던지는가 하면, 체전이 끝난뒤 주최측의 경기협찬속과 행사예산액에 대한 불신을 적은 대자보가 붙는등 시종 어수선함속에 진행된 것。

대동단결을 해도 모자랄터에 흡산들 그렇게 좌충우돌하다가 끝수에 붙어박힌 주력력 처단하기도전에 적들에게 각개격파당할까 우려되는 바。

각개 격파조심

코오롱은 저에게는 가정이나 고향과 같은 정을 느끼게하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공채4기로 입사, 대규모 기업으로 발전해온 코오롱의 모습도 바로 젊음과 정열로 일해온 보람의 기쁨입니다.
특히 임직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직이 리포트가 후배들에게 좋은 참고서로 읽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뿌듯한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나 도움이 되는 원자력전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구해다 주는 교육에 대한 철저한 믿음직, 개인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힘껏 발휘시킨 상사들, 그리고 퇴선을 다한 뒤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 만약 이런 믿음직과 상사들이 없었다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도 코오롱은 창의적인 인재와 퇴선을 다하는 직원에게 성취의 기쁨과 댓가의 보람으로 격려하는 사풍을 동종 기업의 선두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는 아낌없는 지원과 해택을 부여해주는 일터, 그리고 일한 보람의 댓가는 아낌없이 되돌려주는 일터, 저는 저는도 후배들에게 이런 코오롱의 사풍을 이어가하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댓가의 보람을 실현하라고 당부하곤 합니다.

이사 김 원 한

인재는 소중하여 여기는 기업은 스스로 노력하는 인재에게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기업입니다.
코오롱의 젊은 바와 보람을 저는 자신의 보람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일터로 저에게 댓가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창의적인 사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람의 일터는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에 입사한 후 2년6개월의 시간을 정말 정신없이 보내는 동안 직무 업무에 익숙해져가는 제 모습 속에서 커다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신입사원이나 다름없는 저에게 해외영업 Plant 수출이라는 임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저에게 퇴선을 다해보라는 상사의 격려와 다듬어 이한, 해외마케팅, 국제계약실무 및 대외사고, 조선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 주어졌습니다.
그후 해외출장의 기회도 2번이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1년 2월의 미국 보름스, 나이가 및 파키스탄의 출장은 저, 개척 국내에 한정되었던 나의 시야를 크게 넓혀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는 원자력과 국제감각을 갖춘한 해외영업부 세일즈맨으로서의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능 기회는 부여해주고, 최대한 능력을 계획주며, 보람 찬 일터를 만들고 대 아낌이 없는 저의 회사에 감사하며 비록 저는은 해외수주에 대한 책임 뿐이고 있는 단계이지만, 곧 발휘한 일이 모두에게 좋은 따뜻이 댓가의 보람을 마음껏 느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임 최 주 명

미래사회에 투자하는 코오롱

실천하는 젊음의 산행

◇차령산맥 단독 국토횡단을 마치고

성 기 섭
〈동양·인도어2〉

무더운 여름날 긴긴밤 잠못 이루고 뒤척이며 나는 가슴속에 차령산맥을 주능으로한 국토횡단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갔다. 배를 땅에 깔고 누워 지도를 바라본 것만도 수십번. 나는 떠나기도 전에 차령산맥을 몇번이나 다녀왔는지 모른다.

5만분의 1 지도18장을 방안 가득 펴놓고 내가 가야할 길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며 야영지를 정하기도 하고 거리를 측정하기도하면서 밤하룰보냈다.

장장5백46킬로미터의 차령산맥. 나는 그 차령을 통하여 아름다운 나의 조국 강토를 횡으로 가로질러 걸었던것이다.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21박22일.

홀로 대자연의 품에 안겨 때로는 나자신에게 조소를 퍼우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에 못이겨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시간이었다.

9월3일.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 선후배, 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국토횡단의 시발점인 오대산 두로봉을 향해 출발했다. 설레이는 마음과는 달리 막상 오대산에 달랑 혼자 떨어졌을 때에는 약간의 외로움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다. 오대산에 도착하자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는것 같았다.

다음날 시끄러운까마귀 소리에 눈을 떠보니 새벽의 미명사이로 산의 윤곽이 어슴프레 드러났다. 허겁지겁 일어나 일정을 되새기고 몽당초에 불을 당겨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밤새 침입자의 흔적이 보였다. 다름아닌 들쥐였다. 다행으로 식량엔 이상이 없었다. 식사후 무거운 마음으로 배낭을 챙겨 두로봉에 올라섰다. 산맥 너머 물결쳐야할 동해바다가 날씨때문에 보이질 않는다. 서운함을 달래며 서해를 볼수 있는 날을 세어보았다.

하루, 이틀, 사흘……. 지도와 나침반 하나로 자신있게 달려든 나였지만 막상 실제 산행에 임하니 모든 것이 생소하고 투렵기만 했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독도의 실수로 길을 잃고 헤매다가 4시간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산세를 다듬어 제방산에 오르니 내리던 비가 잠시 멈추고 끼어있던 안개가 걷혔다. 동시에 웅장한 차령의 모습이 드러났다. 장관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차령산맥의 자태를 품에 안은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멍하니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산허리에 잠긴 운무사이로 따사로운 햇살이 잠시 인사를 하더니 금새 빗발이 내린다. 아름다운 광경을 놓쳐버린 나는 이것저것을 생각하며 넋을 잃고 걷다가 다시 등로를 벗어나고 말았다. 두려움. 길을 잃고 헤맬때면 나는 가장 진실된 내자신과 만나게 된다. 오만하고 당당하기만 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이제 대자연의 위엄에 무릎꿇고 머리속에 그저 겸손할 뿐이다.

산행도중, 한없이 나약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할때면 따귀라도 갈겨버리고 싶은 치욕을 느낀다. 「에이 바보같은 자식」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버렸다. 아! 나는 왜 떠나왔는가. 겸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떠나 오기엔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었다는 후회도 해본다. 하지만, 나는 그 겸음으로 이렇게 국토종단에 나섰다. 겸음이란 소중한 것이다. 겸음은 곧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하지못하는 겸음은 이미 겸음이 아닌 것이다. 겸음은 모험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앞에 보이던 치악산은 가도가도 나오질 않는다. 난 불과 정상을 10여미터 앞에 두고 쓰러져 버렸다. 배낭을 풀어 조금 남은 생명과도 같은 식수를 머리에 끼얹고 누워버렸다. 눈을 감고 나태해져가는 자신을 질책해 본다. 그렇다. 난 별다른 인간이 아니었다.

결심한 보름 인간에 불과할 뿐이다. 한때에 잘났다고 떠들고 어깨에 힘을 주던 일들은 한낮 유희와 과장이었을 뿐이다. 그건 나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었다. 대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국토를 가로질러 걷고 있다는 자부심과는 또 다르게 지금의 외로움과 괴로움의 고통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팽배해옴을 느낀다.

난 지도를 펴놓고 나침반을 보며 내려갈 길을 찾아보았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난 벌써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목청껏 소리를 질러 정신을 가다듬었다.

인간은 왜 오르고자 하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한걸음 한걸음 정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인간의 오르려는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우리 산 사나이들의 산악활동 자체는 소비적이거나 향락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미지의 세계를 추구하려는 욕망과 자기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한 알피니즘, 이러한 산악인들의 개척정이고 창조적인 활동은 우리인간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것이다. 나는 산이 좋아 산에오른다. 내가 산에 오르는 행위는 내삶의 일단면이다. 하늘은 땅을 사랑한다. 땅은 우리인간을 사랑한다. 우리 산악인들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것을 사랑한다. 나는 지금 차령의 주능을 타고 서해에 닿해 있을 외롭고 가련해 보이는 산길을 걷고있다. 그리 높지도 험하지도 않으면서 정겨운 인정을 느끼게하는 우리의 산이다. 나는 외로운길을 걸으며 진정으로 고독해져 가는 내모습을 발견한다.

1988년 9월24일 오후 1시20분. 나는 기어이 해내고야 말았다. 이번 국토횡단의 최종목적지, 차령산맥의 마지막 봉, 솜을 죽였던 차령이 마지막으로 용틀임하는 통달산에 올랐다. 눈앞에서는 서해바다가, 뒤로는 지금껏 나의 땀방울들로 수놓여졌을 차령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듯했다.

동해를 보고 출발하여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를 지나 충청남도의 서해에 닿하는 장장 21박22일의 고독과 외로움으로 점철된 차령산맥을 주능으로 한 단독 국토횡단은 이것으로써 막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나의 산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산행을 맺음하며 히말라야 정상에 서는 그날을 기약하며, 남북이 하나되는 날 한라에서 백두까지 걸어갈 것을 고대한다. 마지막으로 큰심양면 도움을 주신 누나와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 드린다.

소중한 우리말을 바로알자

◇「우리말의 쓰임새」를 시작하며

남 성 우
〈한교과 교수〉

우리말을 갈고 다듬는시대적소명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래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계속 향상되고 있다. 한국의 지위향상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좋아졌다.

올림픽을 전후하여 해외 동포와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의 2세와 3세들이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 국내대학들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어 강좌를 들으려고 몰밀듯 오고 있다.

이 얼마나 고무적인 현상인가.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추세를 직시하고 우리말과 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진지하고 숙연한 자세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을 들면 음운, 맞춤법, 문법및 어휘들이다.

첫째로 음운에 대해 고찰해 보자. 과연 우리가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 정확히 발음하고 있는지가 큰 문제이다. 예를들면, 모음의 장단음을 발음할 때 변별적 기능을 가진 음의 장단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둘째는 맞춤법 문제이다. 글을 쓸 때 맞춤법에 자신이 없어 당황하거나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항상 국어사전을 참조하는 것이 제일좋다.

세째로 문법에 맞는 글을 써야 한다. 주술 관계를 비롯하여 호응 관계, 정확한 조사의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문 즉 비문법적인 글은 문자 공해로서 독자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

네째로 어휘가 중요하다. 풍부한 어휘력은 말하기와 글쓰기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의 요소이다.

여러 동의어 중에서 문맥에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외국어와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심각한 문제이다.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고어들을 부활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력 신장과 함께 우리말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다.

우리말의 국제적 지위 향상은 우리말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관심의 고양을 동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어를 우리 스스로 아껴고 사랑해야함은 거듭 말할 필요없이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말 사용을 자문해 볼때 앞서 이야기한 음운, 맞춤법, 문법, 어휘 중 어느 하나로도 썩 흡족했다고는 말할수 없다.

이제부터우리말을 갈고 다듬는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해야겠다. 우리가 해야할 지상의 과제요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우리말의 쓰임새』가 그 일익을 담당한다면 그이상 바랄 것이 없다.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의 없는 조언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말의 쓰임새 (150) ~에게

<해태가 아니라 선동렬에 패했다. 모 일간지 스포츠면에서>위 문장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사의 사용이다. 「사람」 뒤에 연결되는 여격조사는 「~에게」(존칭인 경우에는 「~께」) 이어야 한다. 「사람」 뒤에 연결되는 「~에」는 처소격 조사로 이것은 비문법적이다.

『해태에게가 아니고 선동렬에게 패했다』로 고치면 문법적인 글이 된다.

신간소개

천만개의 불꽃으로 타올라라
—정도상 지음

이책은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86년 3월 임금인상 투쟁중 분신한 박영진 열사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이땅의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현황을 직시한 소설이다.

<청사퍼낸 값2천5백원>

화이트칼라 노동조합론
—이영희 엮음

이책은 지난 87년 이후 일기시작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운동을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의 성장배경및 현재적 특성을 고찰하고 더불어 그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노동의 성격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과 중간제 계층으로서의 정치적사명, 그 노동조합 활동사례를 정리한, 화이트칼라 노동조합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라 할수 있는 책이다.

<녹진퍼낸 값 4천2백원>

문화단신

대통령아저씨 그게아니어요
—극단 「연희광대패」

정치풍자극 「대통령아저씨그게 아니어요」가 10월28일부터 11월24일까지(월요일제외)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공연된다.

이 극은 시청료납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방송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정전사고로 인해 외모가 비슷한 탤런트와 위치가 뒤바뀌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사건들을 통해 독재권력자와 그 주변의 권력적 타락, 도덕적 패륜을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연락및 문의처 : 극단 연희광대패 312—6065

꿈꾸는 연습

임 한 균 〈서문·독어2〉

본단조국 44년 ○월○일 흐림

머릿꽤 무슨일이 터질것처럼 이상한 예감에 온몸이 불안하다. 무조건적인 낙관론처럼 무책임한 일은 없다. 불안한 예감은 방만의 어느 순간에 맞아 떨어지곤 했으니까 말이다. 우연성을 이해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 치부하고 지나쳐 버리곤 하는 그것이 필연성의 산물임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때로는 그것이 신의 조화라는 식의 우스꽝스러운 결론을 도출해 내곤하는—우연성을 말이다. 내적 필연의 압적인 증가가 우연으로비약되어 표출 것이라는 것을 안다. 살아왔던 삶과 살아야할 삶이 그리고 살아가고있는 나의 삶이, 그것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관류하는 근본모순의 통일과 투쟁이라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그삶이 기쁘다. 수없이많은 파생적 고통이 있음에도 나는 나의 삶이 기쁜것을, 미치도록 기쁜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후배를 볼때마다 나는 결벽증 환자가되곤 한다. 아침마다 나를 흔내내는 녀석이있다. 호기심이 아닌 다가설수 없는 짝사랑으로 아침마다 녀석을 흘쳐 보고있다. 녀석의 머릿빛 눈망울을 볼때마다 나는 나의 폐속에 존재하는 한알의 먼지라도 제거하고 싶은 욕망에 미쳐버린 정신병자처럼 계속해서 재채기를 하곤 한다.

나의 신입생 시절을 생각해 보곤 한다. 니힐리즘의 폐허위에 변증법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고통이다. 고뇌 따위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주고 싶다. 망해버린 유령회사의 주식을 아직도 자신의 꿈인양 안타까워 하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그가 나오려고 하는 그 서라도 주고 싶다. 사랑은 희생 이라는 진부한 진리를 철저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병적인 도피 행각이 아닌, 그것이 또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인것도 인정한다.

삶과 죽음을 비적대적 모순으로 파악할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수 있을 것이다.

그피혁의 운동장에 서있는 지우는 며칠 전에 민우와 함께 지우의 책꽂이에서 꺼내온 일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날씨는 맑았고 약간의 바람이 있었다. 쌀에 섞인 겨가 바람에 분리되듯 약간의 바람이 그의 머리칼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 버렸다. 지우는 스스로 그 일기를 다시 살기도 하다. 그러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에게 뛰라고 강요 할수는 없다. 그의 앞을 주체적으로 깨지 못한 인간은 그 비협력 미성숙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깨여지기 때문이다.

연재소설

<마지막회>

사람한다. 고뇌하는 모든 인간과 부쟁하려 하는 모든 인간을 그리고 자신의 싸움에서 패배해 버린 모든 인간까지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것을—내가 이미 먹어버린 음식물 일지라도, 그래도 모자란다면 그 음식을 소화 시키겠다고 분비된 위액 마저도 골없이 토해내

의 앞을 막치를 들고 부숴주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에게 뛰라고 강요 할수는 없다. 그의 앞을 주체적으로 깨지 못한 인간은 그 비협력 미성숙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깨여지기 때문이다.

공연은 마당극으로 계속되다가 곧바로 문화패가 선동대구실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었다. 민우를 비롯한 사물패가 깊놀이를 하듯 장장 입구쪽으로 앞서 나갔다. 지우를 비롯한 출연들은 잠시 뒤에 남았다. 지우는 시원한 느낌으로 지금까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탈을 벗어 들었다. 사물패의 뒤에서 길게 줄을 만든 사람들이 그리고 찌꺼기를 남기듯 열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지우는 사람들을 헤치고 앞서간 사물패를 쫓아 갔다. 30~40미터 앞에서 길을 막고 있는 전경들이 신기한듯 그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사물패가 점점 전경들과 거리가 가까워져가고 있었으며 그뒤로 꼬리를 문 사람들의 행렬 역시 그만큼 그들과 가까워져가고 있었다. 대장인듯한 자가 이쪽에다 대고 무어라 지껄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물패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있었다. 곧 이어 전경들이 서둘러 방독면을 쓰기 시작했다. 지우는 사람들사이를 헤치고 사물패사이에 끼어들었다. 전경들의 뒷편에서 까만총신이 하늘을 향해 들려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근처에서 돌도둑이면 손에 꽉쥘만한돌을 집어들면서 가능한한 침착한 자세로 서있으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연습을 하지않아. 울지않는 탈을 위해서는 울지않는 꿀을 위해서는 머이상 연습을 하지않겠어」

하늘엔 구름한점 없었다. 그리고 그 침한 하늘에 그흔한 참새한마리 날지않는 전형적인무풍 가을하늘이었다.

글을 모읍니다

본보문화부는 학우여러분들의 냉철한 지성이 담긴글, 뜨거운 가슴으로 쓰여진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대학보는 여러분의 글을 소중히 여기고 있읍니다.

▲문화에 관계된 소논문 : 17매내외

▲단편소설 : 60~70매

▲문예산책, 수필, 꽁트, 기행문, 시등 : 8매내외

※접수및 문의처 : 본보 학생기자실
(서울 : 학생회관203호, 용인 : 학생회관212호)

종합 일렉트로닉스 세계 No.1

GoldStar

세계가 인정한 첨단기술!

미래로 도약하는 금성의 종합전자 기술!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올림픽에서 인정받은 금성의 첨단기술은
이제 세계의 종합전자기술로 도약하겠읍니다.

성공으로 끝난 서울올림픽을 통해
금성의 첨단기술은 세계의 기술로인정받았읍니다.
올림픽 종합정보망(WINS), 첨단의 가전제품,
케이블TV, 정밀레이다 등 세계의 격찬속에
명확약을 한 첨단기술력을 바탕삼아
금성은 이제 반도체·소재부품, 가전, 산전,
정보통신에 이르는 "종합전자기술"의
토탈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또한번의 도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읍니다.

21세기를 앞당기는 금성의 종합전자 기술

■반도체 16M DRAM, 갈륨비소 반도체에 도전, 정상의 반도체기술을 세계에 공급하겠읍니다.

■소재·부품 세라믹부품, 화인세라믹 등 첨단 신소재를 개발, 세계적인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만들겠읍니다.

■가정용전자 디지틀 오디오 및 첨단가정용기기의 개발은 물론, 홈오토메이션 시대를 앞서 펼치겠읍니다.

■산업용전자 작업로보트, 자동창고 등의 개발로 공장자동화를 구축, 안전과 생산성향상을 동시에 해결하겠읍니다.

■정보통신 첨단의 유무선 통신기기, 시스템 S/W의 개발로 ISDN (종합정보통신망)을 앞서 실현하겠읍니다.

최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